

변화하는 세상에서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로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성도 개개인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교회 본질과 정체성 회복하는 개혁교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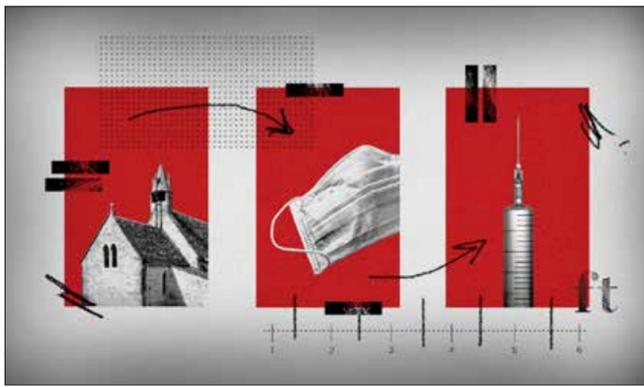
'2021년 종교개혁주일...다시 곱씹어보는 종교개혁 정신과 대안

우리는 종교개혁 504주년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맞이한다. 목양의 현장과 사회적 삶의 현장에서 모두가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미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앞으로 코로나19의 영향 가운데 살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위드코로나(with-covid) 시대에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길 필

요가 있다. 종교개혁의 정신 속에 생명의 길과 삶의 지혜가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정신이라 할 때 많은 것이 언급될 수 있겠지만 위드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내용이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는'(Ad Fontes) 사상일 것이다.

위드코로나 시대, 종교개혁 그만큼 절실하다!

현재 교회는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마치 15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선언문이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부착된 이후 가톨릭교회당을 찾던 사람들이 개혁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가톨릭교회의 교세가 급격히 줄어들었던 상황과 유사하다. 중세 유럽을 온통 지배하던 가톨릭교회는 세력을 잃었지만 신생 개혁교회가 새로운 유럽의 변장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교회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해야 한다.



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의 본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504년 전 1차 종교개혁 당시에는 신앙,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운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구원론 한 가지 주제로 했지만 코로나를 맞은 세계교회는 근본적인 2천년 역사 속에 흘러왔던 신학의 전통의 근본까지도 지금 다시 돌아야 할 시점이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공동체가 무엇인가? 사이버 공간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현장예배를 떠난 현장 없는 예배는 과연 가능한가? 또 성찬은 어떤가? 그게 가능한건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신학적인 질문들이 빠른 속도로 빠른 시일 내에 대답을 신학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혼란과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목회 일선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른다.

단기간에 벌어진 상황이기에 우리의 대응도 그만큼 빨라야 한다. 늦으면 교회당이 텅텅 비게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도 불구에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온적 소극적 대응은 단순히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넘어서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비대면의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래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각각 장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노력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그래도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아무래도 많이 힘들게 될 전망이라고 신학교나 일선 목회자들은 말한다.

그래서 이번에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은 중요하다.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양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경건, 양육,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 교제 등 사실상 대부분의 사역이 힘을 잃었고, 비대면 방식으로 겨우 버텼다. 아직 대면방식 모임이 전면적으로 재개되지 않았기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하겠으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앞으로의 목회계획과 방향성을 세우는 일도 쉽지 않다. 여러 계획과 시도가 필요한 상황임에 분명하다.

이럴 때 자칫 위드 코로나 상황에 포함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대상은 코로나19 이전의 시대가 아니다.

(3면으로 계속)



인터넷의 미래로 부상하는 메타버스!

BBC, 모든 것을 가상현실로 경험하는 미래개념진화 보도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개발을 위해 유럽 내에서 1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메타버스는, 일부에서 인터넷의 미래로 거론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메타버스는 정확히 뭘까?

인터넷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현실(VR)의 개선형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메타버스가 인터넷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80년대 최초의 투박한 휴대전화기 요즘 스마트폰이 됐듯, 가상현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메타버스는 헤드셋을 사용해 컴퓨터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디지털 환경과 연결된 가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가상 세계는 주로 게임에 이용되는 현재의 VR과 달리, 업무, 놀이, 공연, 영화 관람 또는 사고 등 거의 모든 것을 아우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타 버스에서 3D 형태의 아바타, 즉 자신의 분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메타버스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다(Apparently, it's the next big thing. What is the metaverse?).

왜 갑자기 주목을 받을까?

디지털 세계와 증강 현실에 대한 과대광고는 한 번씩 나타났다가 대개 사라진다. 그러나 부유한 투자자들

최근 VR 게임의 발전과 모바일 연결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서 기술이 거의 완성됐다는 의견도 있다.

페이스북이 관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메타버스가 인터넷의 미래가 될 것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4면에서 계속)



시론
은희곤 목사



3면
푸른초장
양민석 목사



4면
16면
..새로운 콘텐츠 문화시연!
히즈평거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 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amaglobal.com | cjb@1919jamagloba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청교도 신앙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에 모든 교회의 참여를 바랍니다.

YouTube 2021년 청교도 신앙회복 온라인 부흥회

청교도 신앙을 배우는 **영적 대각성 온라인 부흥회**

2021년 11월 15일(월)-20일(토)
아침과 저녁, 하루 두 개의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강사

| | |
|---|--|
|  한기홍 목사 은혜한교회 Fullerton, CA |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Los Angeles, CA |
|  양춘길 목사 뉴저지 필그림교회 Hackensack, NJ |  이성철 목사 달라스 연합감리교회 Irving, TX |
|  김우준 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Torrance, CA |  이인상 목사 달라스 세미한교회 Carrollton, TX |
|  위성교 목사 북가주 뉴라이프교회 Fremont, CA |  권 준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Bothell, WA |
|  호성기 목사 필라 안디옥교회 Conshohocken, PA |  손정훈 목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Duluth, GA |
|  허연행 목사 뉴욕 프라미스교회 Flushing, NY |  김춘근 교수 JAMA Lindale, TX |

참여방법
온라인 영상 부흥회로서 **교회적으로 특별 부흥회를 개최**하거나 개인적으로 어디서든지 Youtube 시청

설교주제 (강사)

- 11월 15일 왜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야하나? (한기홍 목사) / 청교도, 그들은 누구인가? (양춘길 목사)
- 11월 16일 청교도의 말씀 사랑 (김우준 목사) / 청교도의 기도 생활 (위성교 목사)
- 11월 17일 청교도의 차세대 신앙 전수 (호성기 목사) / 청교도가 세운 위대한 미국 (허연행 목사)
- 11월 18일 청교도의 청지기 정신 (진유철 목사) / 청교도의 교육 (이성철 목사)
- 11월 19일 청교도의 예배 개혁과 주일 성수 (이인상 목사) / 일터에서의 청교도 (권 준 목사)
- 11월 20일 청교도의 가정 사역 (손정훈 목사) / 청교도와 리더십 (김춘근 교수)

주관 Jima
청교도 신앙회복 영적대각성 부흥회 준비위원회 (대표: 한기홍, 김춘근)

주최 각도시 교회협의회 | 미주성서화운동

연락처 강순영 목사 (JAMA 기도사역담당, 청교도 신앙회복운동 준비위원장)
(310) 995-3936 / kang@jamaglobal.com

www.JAMAprayer.org

발행인 칼럼

튤립 꽃을 듣자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내일은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일이다. 온 세상을 헤집고도 아직 끝이 안 보이는 팬데믹 때문일까. 어떤 감격도 기대도 없는 쓸쓸한 날이 될 것 같다.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에 소망을 둘지 온 인류는 방향을 잃고 휘청대고 있다. 이러 할 때 교회마저 실망하고 있으면 안 된다. 실망 대신 꽃을 들어보자. 이 가을날 무슨 꽃을 듣자? 튤립(TULIP)이다. 그 꽃을 들면 꽃을 든 자부터 시작해 주변에도 선한 영향을 준다.

네덜란드를 주산지로 하는 아름다운 꽃 튤립(TULIP). 꽃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갖고 있듯이 튤립도 애뜻한 전설을 품고 있다. 한 소녀가 세 청년에게 동시에 청혼을 받게 되었다. 높은 신분의 왕자, 용감한 기사, 그리고 돈 많은 상인의 아들. 행복한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소녀는 누구와도 결혼하지 못했다. 그 소녀가 죽으며 핀 꽃이 튤립인데 그래서 전체 모양이 왕관 같고, 꽃잎 끝은 칼 같으며, 색깔은 주로 황금빛을 띤다고 한다.

네덜란드에서 피어난 또 하나의 튤립(TULIP)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전설이 아니라 진리다. 종교개혁의 불이 전 유럽에 번질 때 네덜란드는 신학적 대격돌의 현장이었다. 그 치열한 장소에서 1618년과 1619년 사이에 피어나 만개(滿開)된 꽃이 있으니 그 이름이 튤립이다. Total Depravity(전적 부패): 모든 인간은 그 본성이 타락하여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 한다/ Unconditional Election(무조건적 선택): 누구에게 참된 믿음을 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Limited Atonement(제한 속죄): 주님의 속죄는 택한 자를 위한 것이다/ Irresistible Grace(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구원을 거절할 수 없다/ Perseverance of the Saint(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결코 떨어지지 않고 구원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 튤립은 종교개혁의 진수를 보여주며 그 뿌리가 성경에 있음을 드러내는 진리의 꽃이다.

네덜란드 튤립 꽃 이야기는 계속된다. 네덜란드에는 개혁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후련 반 프린스터,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등은 비범한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 바빙크를 보라. 그 또한 아주 멋진 튤립(TULIP)이었다. Theologian: 그는 탁월한 신학자/ Umpire: 그는 정확한 판단자/ Leader: 그는 열정적인 지도자/ Improver: 그는 발전을 도모하는 자/ Pastor: 그는 신실한 목사. 그렇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그가 여러 영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통해 남긴 족적(足跡)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선명하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 암울할 수는 없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가 낙심하면 세상은 어찌란 말인가. 교회여 다시 꽃을 듣자. 튤립 꽃을 듣자. 왕관과 칼과 황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름다운 튤립 꽃을 듣자. 다섯 송이로 묶여진 진리의 튤립 꽃을 듣자. 헤르만 바빙크의 삶과 사역이 보여준 풍성한 튤립 꽃을 아울러 듣자. 튤립 꽃을 든 자는 필시(必是) 다르게 살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영원하다!

데멜리오스, 돈 카슨이 전하는 성경 권위 포기하게 만드는 교묘한 수법 소개(상)

오늘날 서구 크리스천은 성경의 권위와 관련해 여러 가지 명백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단지 위협이 명백하다는 사실만으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눈에 띄지 않게 다가오는 교묘한 위협이 회의론을 조장한다는 사실이다. TGC 전 대표인

돈 카슨(Don Carson)은 데멜리오스(Themelios)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포기하게 만드는 교묘한 수법들을 설명한다(How to Subtly Abandon Your Bible's Authority).

선택적 증거에만 의존하는 위험성에 관해

선택적 증거에만 호소함으로써 말씀의 권위가 약해지는 표류의 가장 심각한 형태는 건강, 부, 번영의 복음을 의미하는 HWPG(Health, Wealth, Prosperity Gospel) 설교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번영을 주신다는 구절과 왕의 자녀가 되는 사실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구절을 서로 연결하라. 그러면 확실한 이론(case)이 하나 만들어진다.

거기에도 조건이 하나 따라온다.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하기 위해서

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골치 아픈 문제들이 알아서 사라지겠지 라는 비참한 희망을 붙들

난처한 구절과 주제의 회피에 관해



런 것이다. “오늘 아침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 본문도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다보면 만나는 다른 많은 구절과 마찬가지로 꽤 충격적인 방식으로 지옥을 묘사하는 데요. 솔직히 저는 이 구절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구절은 무엇보다 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절을 완전히 무시하고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성경에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설교자가 공식적으로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설교자

선택적 증거에만 호소하는 번영복음의 최적 해독제는 체계적인 강해설교 난처한 구절주제 회피, 입장 정당화에 성경남용, 말씀앞에 경외감 사라져

이 세상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 아니 그런 고난이 사실상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라는 등의 생각은 깨끗하게 머리에서 지워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말씀 왜곡은 너무나 자명하기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조금도 어렵지 않다.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교묘한 것이다. 교회 내 논쟁을 피하려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언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 싫다는 이유로 뜨거운 주제(빈곤, 인종차별, 동성애 결혼, 남녀 차별)에 관해서 진동제(anodyne) 치료법을 쓰는 것이

고 사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슬프다. 아무리 어려운 주제라고 해도 우리가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올바른 사고체계를 갖추려고 하지 않는다면 교인의 대부분이 결국에는 세상 문화가 만들어주는 사고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가장 좋은 해독제는 체계적인 강해설교다. 왜냐하면 강해설교는 텍스트가 말하는 그대로 설교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주제설교는 얼마든지 어려운 텍스트를 피할 수 있다. 물론 문화적으로 맹목적 시각에 빠진 사람들은 바른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다.

설교자가 이따금 특정 주제를 피하는 이유는 주제가 주는 어느 정도의 난처함 때문이다. 당혹감을 느낀다는 것은 설교자가 스스로 보기에 설교를 통해 선포할 만큼 특정 주제(예를 들어 종말론이나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주제)를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낸다. 또는 주제 자체에 느끼는 일반적인 불편함(예를 들어 예정론) 때문에, 교인들이 너무도 싫어하는 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또는 성경에 반복해서 등장하나 설교자 자신이 정말로 싫어하는 주제라서(예를 들어 지옥과 영원한 심판) 그럴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추한 형태의 말은 이

는 사실상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동정심 많고 민감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사악한 것이 상으로 기만적인 이러한 태도는 실제로 주변에 널리 퍼졌다.

비정통적인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성경 남용에 관해

최근에 존더반 출판사는 ‘동성애, 성경 그리고 교회에 대한 두 가지 견해(Two Views on Homosexuality, the Bible, and the Church)’를 출간했다. 이 책은 두 가지 견해를 각각 “지지(affirming)”와 “지지하지 않음(non-affirming)”으로 구분하고,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MD, a neurologist and neurosurgeon. Services include various neurological and neurosurgical procedures. Contact: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Address: 154-08 Northern Blvd, Suite 2K, Flushing, NY 11354.

Advertisement for Bethesda Dental. Services include general dentistry, orthodontics, and emergency care. Contact: Tel: 646.422.7330, Fax: 201.431.9753. Address: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Advertisement for FAMILI STUDY at NYU Langone Health.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into diet, environment, and disease. Recruitment for participants aged 40 and above. Contact: Hee Choi, MS, RD. Tel: 646-501-3673. Website: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Advertisement for WKCC (Westlake Korean Community Church) regarding a church council election. Position: 담임목사 청빙공고. Location: California Ventura County. Contact: wkcc.media@gmail.com or Allenkjo@gmail.com. Election period: 10/17 - 12/05/2021.

교회 본질과 정체성 ...

(1면에서 계속)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떤 실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오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종교개혁 정신이 가르쳐주듯이 성경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성경, 그 본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도 교회를 찾아오셨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원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거나 코로

나에 적응하는 것이 아닌 '위드-하나님', 즉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려는 노력이어야 한다. 위기의 시기에 교회 안팎에서 많은 이들이 교회의 의미를 묻는다. 이 시대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회복을 요구한다. 교회가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개혁적 교회가 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환경재앙의 일환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보다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의 결과다. 그동안 선교가 인간 중심적 구원만을 강조하다보니 생태계를 인간의 삶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

다. 인간뿐 아니라 온 피조물을 살리는 생명선교를 지향해야 할 필요성이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다. 생명선교 차원에서 '창조세계의 돌봄'은 삼위일체적 하나님 선교의 또 하나의 핵심이다. 선교적 공동체로서 교회가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안전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선교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한다. 생명선교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기에 사람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치유와 위로의 선교를 전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갖는 연결성을 강조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문화 가운데서도 대면모임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사회적 연결성이 여전한함을 보여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선교의 단초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관계의 의미와 그 진정성을 경험하도록 교회의 플랫폼을 적극 전환해야 한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온라인 네트워크가 주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 교회는 성도들이 공동체의 소속감을 계속 갖도록 해야 한다.



시론

'위드코로나' 시대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은희곤 목사 (기독교 평화포럼 대표)

-하와이 군도 북서쪽 끝에 '카우아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이 섬이 한때는 "지옥의 섬"이라 불리어졌습니다. 그곳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그런 어른들을 보고 배우며 똑같이 범죄자, 중독자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섬을 주목하면서 카우아이 섬의 중단 연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955년에 태어난 신생아 833명이 30세 성인이 될 때까지의 성장과정을 추적하는 매우 규모가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많은 학

자들과 사람들의 예상은 대부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생에 잘 적응하지 못해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범죄자, 중독자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 것이다"는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에미 워너 교수는 833명중 고아나 범죄자의 자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201명을 따로 정해 그들의 성장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70여명의 아이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은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대학교 장학생으로 입학하는 등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모범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에미 워너 교수는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끝까지 자기 편이 되어 믿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어른이 최소한 한명이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목사님, 선생님 등등, 실패해도 좌절해도 더 나은 내일을 무조건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그 한사람'이 있었기에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며 비관하지 않고 밝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상담학에서는 '그 한사람'을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이라고 부릅니다(인터넷 퍼온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삶의 위기의 순간에, 삶의 좌절과 절망의 시간에,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는 처절한 고독을 겪을 때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바로 그 순간에, 나에게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구나!'라고 공감하며 나를 믿어준 '그 한사람'이 있었나? 만약 있었다면 나의 인생의 긍정적인 선한 면들은 '그 한사람'으로 인해 생겨났을 것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말썽꾸러기 헬렌 켈러는 "나는 앤 설리반 때문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헬렌 켈러에게 '그 한사람',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은 바로 앤 설리반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의미 있는 타인은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이 필요한 사람은 성경 앞에 서야 합니다(역대하20:12-13). 그리고 '신앙의 동역자'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 다윗에게는 사무엘, 디모데에게는 바울이라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멘토로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며 사람을 바꿔 놓습니다. 만약 이 멘토가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도 그런 멘토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입니다. 부모의 삶의 모습은 자녀들에게서 보여집니다. 부모가 치열하게 살면 자녀들도 치열하게 삽니다. 엄마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돈보가 너머로 성경을 보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 아이들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보고 지혜를 구합니다. 아프고 어려워도 교회에 나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엄마 아빠를 보며 자라난 아이들이 커서도 복음에 헌신하는 자녀들로 자라납니다. 하나님 눈에 띄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 아이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으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유업이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미국 사우스 알라바마대학교의 교수이자 학술원 작가였던 루이스 분(Louis E. Boone)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가 있다. 1)할 수도 있었는데(could have), 2)해야 했는데(might have), 3)해야만 했는데(should have)이다."

우리는 지금도 의미 있는 타인이 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습니다.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한사람' 즉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이 되어준다면 '위드코로나' 시대에서도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주변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격려와 응원 그리고 진솔한 배려의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물결처럼 번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생의 가치와 기쁨 그리고 감사와 행복을 나누며 느낄 것입니다. 이 가을에 기도하며 기대해 봅시다. 내가 이웃과 자녀들에게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이 되기를!

pastor.eun@gmail.com

하나님 말씀의...

(2면에서 계속) 두 명의 저자가 양쪽의 견해를 대변하도록 구성돼 있다. 양쪽 다 말로는 "성경을 근거로" 논쟁을 벌인다고 한다.

한때 "지지" 쪽의 견해조차 신앙고백적 복음주의자가 견지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왔던 반면,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지지하지 않는 견해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쪽의 견해도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일종의 대안적 복음주의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같은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성경이 동성애 결혼을 금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이 동성애 결혼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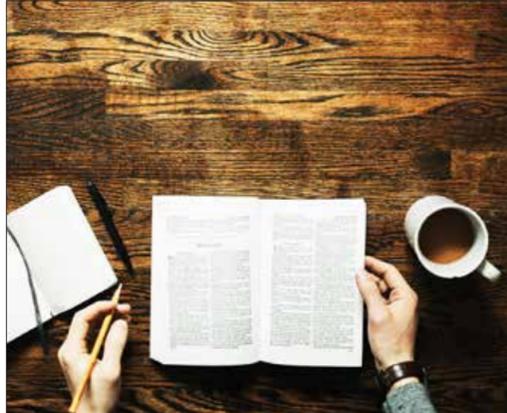
동성애 결혼에 대해 "지지" 견해를 취하는 것이 구원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며, 그런 사람을 복음주의 진영 밖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명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예를 들어 에세이 '성 윤리에 대한 복음주의적 접근(An Evangelical Approach to Sexual Ethics)'에서 스티브 홈즈(Steven Holmes)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오직 믿음(Sola Fide), 나

는 거기에 서 있어야 한다. 내가 걷는 곳과 우리 모두가 걷는 곳에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온 세상을 위하여 단번에 드리신 완전한 제사이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새롭게 하시는 보혈이다. 그리고 그 구원이 나를 포함한 것이라면 나의 모든 실패와 혼란 속에서도 구원은 유효하다. 또한 동성결혼을 긍정하는 나의 친구들, 그리고 그들이 겪는 모든 실패와 혼란 속에서도 구원은 역사한다. 신실하고 믿음이 확고한 내 친구들에게 구원의 희망이 없다면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것은 솔라 피데(sola fide)를 외치는 복음주의의 주장의 남용이다. 나는 구원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외에 이상애를 긍정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만 난 적이 없다. 오직 믿음만이 은혜를 전유하는 수단이다. 그 은혜는 너무나 강력해 인간을 변화시킨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은 왕이신 예수의 주권 아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5:19-21).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



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 사상의 맥락에서 볼 때 그가 주장하는 것은 죄 없는 완전한 자만이 천국에 들 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그러한 죄(탐욕이나 간음, 동성애 행위 또는 그 무엇이든)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죄가 그들을 정의하고 특징지을 수 없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솔라 피데를 외침으로 구원이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얻는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확증하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함이 구원의 산물이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선언하신 것, 그 죄를 짓는 자는 왕국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죄도 그 죄가 아니라고(non-sinfulness) 주장하며, 솔라 피데가 여차피 다 구원할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성경은 흠즈가 말했듯이 "실패와 혼란"에 빠져 미끄러진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만 구원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근거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자리는 남아 있지 않다.

오직 은혜(Sola gratia)와 오직 믿음(sola fide)은 항상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을 동반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Midwest University is Texas state approved and FAA approved. SEVIS I-20 issued in Dallas, Texas. College of International Avi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 Flight. Professional Pilot Certificate Program (FAA). College of International Aviation. Certificate Program. 항공조종 교관, 항공정비 엔지니어 과정.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Dallas Campus: 4849 Spartan Dr., Denton, TX 76207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호모헌드레드와 메멘토 모리

한국인들이 과거에는 60세가 되면 장수를 축하하여 크게 환갑잔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발달한 지금은 100세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우리는 '호모헌드레드'(Homo Hundred)시대, 즉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학자들은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100세 시대를 사는 것이 축복일 것입니다. 성경도 장수가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축복일까?"라는 생각을 종종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저의 아버지가 경영하시던 약국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

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본인의 건강관리에는 소홀하셨던 아버지는 여러 해 동안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85세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또한 87세 되신 어머니, 그리고 거의 90세를 바라보시는 장인이든도 요즘 극도로 허약해지셔서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오히려 몇 년 전에 위암수술을 받으신 장모님만 아직도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시고 김치를 담가서 나누어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경을 필사하시면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점점 건강을 잃고 고통 중에 계신 양가 부모님들의 노화와정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건강을 잃은 장수가 축복일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오래

오래 자손들과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긴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부모님들을 살피며 자식 된 도리를 다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외동딸을 가진 아버지의 입장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바라보는 아들의 입장과 많이 다릅니다. 아버지인 저는 사랑하는 딸에게 집이 되면서 장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늙고 병들게 되면 딸에게 폐를 끼치기 전에 빨리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신바람 박사'라고 불렸던 황수관 박사는 '9988234'라는 유행어를 남겼습니다.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살다가 2-3

일만 아프고 사망(4)하자"는 의미입니다. 이 말처럼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장수하시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양가 부모님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한 저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9988234!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강을 아직 건강할 때 지킵시다. 건강할 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들을 더 사랑합시다. 건강할 때 예수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가 된 성도들을 더 사랑합시다. 건강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을 더 사랑합시다.

건강할 때 예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건강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합시다. 건강할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삽시다. 건강할 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더욱 헌신합니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며 사세요. 건강할 때 노후 준비만 아니라 사후준비도 합시다. 건강할 때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삽시다. 건강할 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삽시다. 나의 죽음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이라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 가나이다'(사90:10).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9988234!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푸/른/초/장

양민석 목사
(뉴욕그레이트교회)



2016년 12월 출간해서 2020년까지 아마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애플 팟캐스트비즈니스 1억 뷰이상 다운로드를 받은 책이 있다.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200명을 만나 취재하고 잘 정리해서 내놓은 책이다. 바로 타이탄의 도구들(Tool of Titans)이란 책이다. 그 외에도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들은 성공에 관한 주제를 가진 책들이다.

또 한쪽에 인기 있는 분야가 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관심이 증폭되고 많이 찾는 책들과 강의들이다. 다름 아닌 건강에 관한 것들이다.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그럼 이 같은 내용들이 세간의 지대한 관심을 끄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다. 매사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바람과 소망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다를까? 그렇지 않다. 기도제목들 들어보면 누구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공통기도제목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한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고백한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 중보기도로 응원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요한이 쓴 편지 요한3서 2절에서 가이오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소개된다. 참고로 가이오라는 이름은 한글의 철수나, 영철이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었는데 어떤 가이오를 말하는지 잘 알려지지 않는다. 하

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3서의 짧은 편지가운데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수식어가 3번씩이나 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사도요한이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로 판단할 수 있다.

아마도 초대교회 시절, 환난과 역경 중에도 충성스럽게 사역을 함께 해왔던 제자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처럼 더욱 진심을 담아 가이오를 축복하고 싶었고, 내용이운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라는 기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제로 붙어있는 단어이다. (요삼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라는 말이다. 즉 세상일이 잘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되기에 앞서 먼저 네 영혼이 잘됨으로 인해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다.

그렇다. 기독교 축복의 키워드는 영혼의 잘됨에 들어있다. 영혼이 잘못되면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더 멀어질 수 있기에 복이 아니라 저주일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혼이란 무엇일까?

(마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도 베드로는 (벧전3:3-4)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고 말했다. 즉 육신의 건강, 물질적인 삶에만 집중하지 말고 영혼관리에 진정으로 힘써야한다는 것이다.

2)또한 영혼이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본문에서 "네 영혼이 잘 됨같이..."라고 할때, '잘됨'이란 단어는 원어, '성공'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성공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영혼의 잘됨은 하

는 일이 따라온 것이다.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공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야했다. 사도바울은 그렇게 선교에 불타 전도하던 중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짐으로 하나님께 3번씩이나 병 낫기를 간구하였다. 하지만 네 은혜가 족하도다 라는 응답 속에서 병을 안고 살아야했다.

이런 예들은 참으로 신앙의 모순처럼 보인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고통스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당신의 존재를 인생 한복판에 드러내주셨다. 어두워야 밤하늘의 달과 별이 더 선명히 드러나듯 인생의 어두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더욱 잘 깨닫도록 해주셨던 것이다. 요셉은 노예로 있던 보디발의 집안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형통케 하심으로(창39:2-

무너뜨리려 달려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성공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케 하시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점점 더 강하게 세워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의 삶이 진정으로 잘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잘됨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힘써야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혼을 잘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참된 예배를 세워가야 한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일번지이기 때문이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를 성경에서 찾고 우리 영성에 담아내야한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성공적인 예배는 상한심령을 쏟아놓는 예배이어야 한다.

(시51:16-17)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심중을 드리는 예배, 깊은 샘에서 퍼올린 샘물처럼 내 깊은 영혼 안에 것들을 끌어올려 주님께 올려놓는 예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고 기도의 두레박에 영혼의 감사를 담아 올리는 예배, 죄로 인한 양심의 아픔을 눈물주머니에 담아 회개하며 드리는 예배, 예배중 주시는 레마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으로 내 심중에 소망을 발견하며 새롭게 주님 뜻대로 살것노라 결단하며 고백하는 예배...

팬데믹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한다.

lilyumc@hotmail.com

잘 되는 삶을 위하여

요한삼서 1장 1-4절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처럼 '만사형통', '무병장수'의 삶이 되기를 요한도 기도했던 것이요 성령에 감동된 요한 때 흉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숨)이라는 뜻이 들어있다. 즉 인간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의 숨이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며, 이 영혼이 인간육신에 들어갈 때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란 존재는 영혼이 육에서 빠져 나가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영혼이 있어야 현세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죽음 후에도 영생과 심판이 있기에 제대로 관리해야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요6:63)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3, 창39:23),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끝내 만인 을 위한 총리가 되도록 하셨다. 다니엘 또한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련을 통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해 보였고, 이방 왕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돌리도록 만드셨다(단6:13-20). 사도바울 역시, 고통을 통하여 겸손의 성품을 간직토록 하였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함을 통하여 지속적인 능력사역이 가능케 되었음을 알게 하셨다(고후12:8-9).

따라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공적으로 잘되기 때

니님과 교제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각종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질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활발하여도 범사에 여전히 시험이 계속 될 수 있고,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요셉은 어린시절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갔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어 인정받을 정도로 성실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 교제 속에 성결의 삶을 지켰지만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동조하지 않음으로 역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정말 분통터지지 않을 수 없

3, 창39:23),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끝내 만인 을 위한 총리가 되도록 하셨다. 다니엘 또한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련을 통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해 보였고, 이방 왕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돌리도록 만드셨다(단6:13-20). 사도바울 역시, 고통을 통하여 겸손의 성품을 간직토록 하였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함을 통하여 지속적인 능력사역이 가능케 되었음을 알게 하셨다(고후12:8-9).

따라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공적으로 잘되기 때

스마스 선물로 인기를 얻었다. 디지털 상품의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인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른바 NFT(Non-fungible Token)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가상 경제의 작동 방식을 보여준다.

또한 보다 발전된 디지털 세상 더 우수하고 더 일관되고 더 많은 모바일 연결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는 5G의 출시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초기 단계다. 메타버스의 진화는 만약 일어난다면 향후 10년 또는 그 이상 거대 기술 기업 간의 전쟁이 될 것이다.

인터넷의 미래로 ...

(1면에서 계속)

페이스북은 VR 기기 오클러스 헤드셋을 통해 연결되는 가상현실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일각에서는 오클러스 헤드셋이 손해를 감수하고도 경쟁 제품보다 저렴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또한, 페이스북은 현실 세계와 상호 작용하는 앱을 포함해 친목 및 업무용 VR 앱을 구축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과거 경쟁업체를 매입했던 이력이 있지만 이번에는 메타버스가 "하룻밤 사이 한 회사에 의해 구축될 수 없다"라며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를 책임감 있

게 구축한다며 비영리 단체에 5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진정한 메타버스가 실현되기까지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누가 메타버스에 관심 갖나?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의 제작사 에픽 게임즈의 수장 스위니는 오랫동안 자신이 메타버스에 가진 열정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온라인 다자간 게임들은 지난 수십 년간 상호작용하는 세계를 만들어왔다. 이들이 메타버스는 아니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포트나이트는 자체 디지털 세계에서 공연이나

브랜드 홍보 이벤트 등을 주최하며 제품을 확장해왔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현 가능한 일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고, 스위니가 가진 메타버스에 대한 비전이 주목받게 됐다.

다른 게임들도 메타버스 개념에 가까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로블록스(Roblox)'는 보다 큰 생태계에 연결된 수천 개의 개별 게임을 위한 플랫폼이다.

한편, 3D 개발 플랫폼 '유니티(Unity)'는 현실 세계의 디지털 사본인 '디지털 트윈'에 투자하고 있고, 그래픽 회사 엔비디아(Nvidia)는 3D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인 '옴니버스(Omniverse)'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서 메타버스는 게임과 관련된 것인가?

아니다. 메타버스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데, 대부분 인간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핵심으로 본다. 예컨대 페이스북은 워크플레이스(Workplace)라는 가상 회의 앱과 호라이즌(Horizons)이라는 소셜 앱을 실험하고 있다. 모두 가상 아바타 시스템을 사용한다.

또 다른 VR 앱인 브일렛(VRChat)은 온라인에서의 사교 활동과 채팅에만 전적으로 집중한다.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

이외에도 사람들이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앱들이 존재한다.

스위니는 최근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새 모델을 광고하려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를 세상에 내놓으면 당신은 실시간으로 그 제품을 운전하는" 세상을 상상해본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을 예로 든다면, 아마도 디지털 옷을 먼저 입어본 뒤 현실 세계에 배송될 수 있도록 주문할 것이다.

관련 기술은 나왔나?

VR은 최근 몇 년 간 많은 진전을 이뤘다. 고급 VR기기들은 착용자의 눈을 속여 가상 세계를 3D로 보여준다. 또한 VR 기기들은 주류로 부상했다. VR 게임용 헤드셋 '오클러스 퀘스트2'는 지난해 크리

스위니는 최근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새 모델을 광고하려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를 세상에 내놓으면 당신은 실시간으로 그 제품을 운전하는" 세상을 상상해본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을 예로 든다면, 아마도 디지털 옷을 먼저 입어본 뒤 현실 세계에 배송될 수 있도록 주문할 것이다.

관련 기술은 나왔나?

VR은 최근 몇 년 간 많은 진전을 이뤘다. 고급 VR기기들은 착용자의 눈을 속여 가상 세계를 3D로 보여준다. 또한 VR 기기들은 주류로 부상했다. VR 게임용 헤드셋 '오클러스 퀘스트2'는 지난해 크리

스마스 선물로 인기를 얻었다. 디지털 상품의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인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른바 NFT(Non-fungible Token)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가상 경제의 작동 방식을 보여준다.

또한 보다 발전된 디지털 세상 더 우수하고 더 일관되고 더 많은 모바일 연결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는 5G의 출시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초기 단계다. 메타버스의 진화는 만약 일어난다면 향후 10년 또는 그 이상 거대 기술 기업 간의 전쟁이 될 것이다.

교회의 위기

예전 관광비자가 전자여권으로 바뀐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한인 이민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이구동성 말했던 기억이 있다. 실제 이곳저곳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게 사실이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됨으로 교회로 모이는 성도의 숫자도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국에서는 1만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곳 미주의 대도시의 교회들에도 작은 교회들은 재정과 시설 모 든 면에서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한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더 나은 시설과 환경을 따라 눈길 손질이 가던 현실이, 이제는 마음껏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에도 그 습관을 유지하거나 혹은 가까운 곳의 대형 교회로 이동하는 예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두고서도 입을 모아 '교회의 건강하지 못함,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근본에서 생각해보면 과연 교회에 위기라는 말이 존

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아는 것에 따라 행하지는 않지만 믿는 바에 따라서는 행하게 되는 존재이다. 아는 데서 끝나면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 없게 된다.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것은 야고보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며 부락이다. 산상수훈을 강론하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부분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할 것을 말씀하셨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의 두 부류이다. 신자도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두 부류로 나뉘어짐을 보게 된다. 참된 성도는 말씀을 들음이 영적인 지식이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마침내 그 믿음에 따라 행하는 순종의 과정을 지난다. 이것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다.

많이 듣고, 알고, 지식을 얻고, 정보를 쌓아 가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의도한 사람으로 자랄 수가 없다. 영적인 기형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머리는 큰데, 온갖 정보는 가득한데, 성경도 잘 알고 교계소식도 많이 알고 한국의

기러기가 되어 애완용 집새가 되거나 독수리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참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는 현상적인 열악함을 말씀과 성령, 믿음의 행함,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는 이들도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평범한 제자들의 땅끝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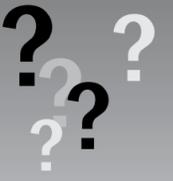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고기잡이를 해서 좋은 수익을 얻고 날씨가 궂은 날이면 그저 하늘만 원망하며 살던 평범한 어부들이었다. 그러나 저들에게 차별 없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 단 한번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벗어나본 적이 없던 저들이 감히 볼 수 없고 생각의 상상조차하기 힘들었을 땅끝을 보고 날아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지구 반대편도 서슴지 않고 달려갔으며, 타향과 타국에서 순교의 귀한 제물이 되기까지 아름다운 비전 너리의 삶을 살아내었던 것이다. 귀한 복음의 말씀들이 그대로 믿

집안배경과 삶의 여유가 있는 넉넉한 집이었다. 그런데 심방 내내 안주인 집사님이 손바닥으로 마루를 문지르며 닦는 것이었다. 조용히 이유를 물어보니 청소기로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는 것이다.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시간이 참 잘 간다는 것이었다. 엄청난 충격이었다. 주의 복음의 사명 앞에 불꽃같은 제자로 살아야 될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방지되어 헛된 시간을 보낸단 말인가?

그때 심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자훈련 목회에 대한 첫 마음을 품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개척된 교회 이름이 '제자들교회'가 되었던 것이다. 성도의 삶에 말씀을 터치하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것을 목회철학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을 풍성케 하심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 전인격적인 헌신과 순종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최근에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시는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되며 어떤 절차로 되며 오늘날도 선지자 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LA에서 미주원로장대회 회장 김종명 장로

A: 좋은 질문입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로서 구약에서 명사형으로만 거의 300회 정도 사용됩니다. 주로 선지자(Prophet)로 번역됩니다. 예언자 혹은 선견자(seer), 하나님의 사람(히브리어로 이쉬 엘로힘)로도 번역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서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선지자의 임무는 구약에서 주로 2가지인데 1)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메시지를 받는 것이고 2)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비록 그 성질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2가지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1)백성들을 대신하여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으며 2)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선지자와는 달랐습니다. 주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성경도 선지자에 대해 말합니다(행11:28, 13:1,2, 고전12:10, 13:2, 14:3, 엡2:20, 3:5, 4:11, 딤후1:18, 4:14, 계11:6)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선지자들은 종종 비밀을 드러내고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선지자 직은 사도시대에 국한, 오늘날은 그 직능이 목회자 설교사역으로 편입

조직신학자인 서철원 교수는 그의 조직신학 책에서 "신약에서는 구약의 경우와 크게 달랐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전달에 있어서 중심에 섰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사역을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게 하셨다. 신약의 경우 선지자들은 계시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사도들이 계시의 기관과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해석을 전달하였으므로 그들은 새로운 시를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일부 가까운 미래사건을 예언하기는 하였다(행11:28, 21:10). 그러나 신약의 선지자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권면을 하였다. 이들 선지자들은 사도들의 퇴장과 함께 사라지고 새로운 선지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은 교회의 비성직원으로 교회의 설립 초기에 역사하였다(p.141-42).

개혁신학자인 로버트 레이먼드(Robert L. Reymond)는 "신약 선지자의 영감은 그쳐졌으므로 선지자 직도 그쳐졌고 선지자적 직임은 가르치는 직임 속으로 편입되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개혁과 신학에서는 오늘날 선지자(예언자)가 없고 오직 성경에 의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한국에 낳은 주경신학자인 박윤선 박사도 "예언의 역사는 사도의 역사처럼 계시시대(사도시대)에만 있었던 단회적에 속한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신약의 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선지자가 따로 없고 신자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급의 신령한 지혜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이승구,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 p.168-169).

위의 것을 종합해보면 신약시대의 선지자 직은 주로 사도시대에 국한하며 오늘날 자신이 선지자라고 칭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며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은 그 선지자적 직능(Function)이 목회자의 설교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설교자는 옛날 선지자적인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의 창을 통해 이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 등을 바로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성도의 삶을 제시해주어야 할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

- 교회의 위기, 성도의 위기, 단순비결

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주신 되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위기를 당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어려움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교회의 위기가 아닌 다만 연약한 성도인 우리 '신앙의 위기'일 뿐이다. 환경에 따라 일회일비하며 성도의 성도다움을 말씀으로 지켜내지 못할 때 그것이 결국 위기가 되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다.

성도의 위기

그러면 성도의 위기라고 말할 때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데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에베소서 4장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신다. 온전한 사람, 즉 성장과 성숙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유명한 목사님 소식들도 잘 이야기하는데, 그는 삶이 아주 까칠하지만 하다. 이유가 무엇인가?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리새인은 그저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따름이다.

깃털 빠진 기러기

집에서 기러기를 키워서 그 알을 파는 직업을 가진 이가 있다. 기러기 알과 기름이 동맥경화, 간염, 지방간에 효능이 있다는 소식에 꽤 관췌은 직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러기는 철새가 아닌가? 철새는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오르는 그런 동물인데 어떻게 집에서 키울 수 있단 말인가? 영영비밀 같은 이야기이지 만 기러기의 털을 몇 개 빼버리면 주위만 뻘뻘 땀들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다. 바다를 지나고 구름을 벗 삼아 V자 대형으로 멀리 멀리 날아가던 기러기가 이제는 시골 동네 아저씨의 애완용 집 새가 되어버린 것이다.

집에서 키우는 이 기러기를 통해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원래는 기러기처럼 창공을 날아서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갈 수 있는 존재도 된가 빠 버리면 시시한 집새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독수리 날개 치며 오름과 같은 삶, 높은 곳을 다니는 사슴의 발과 같은 삶을 원하시는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몰라도 깃털이 빠져 버린 것이다. 이렇게 깃털 빠져버린

어지게 되니 아무런 거칠 것이 없었던 것이다. 원래 복음과 말씀이 그런 능력을 본질로서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되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온전한 능력의 역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요, 말씀이다. 조선시대 복음이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보라. 저들 대부분이 상놈, 거지, 백정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에 상관없이 진실로 그 말씀을 이들에게는 한결같은 은혜들을 부여주시고 강력한 복음의 힘에 의해 강력한 부흥을 맛보게 하셨던 것이다.

생명과 구원, 그 풍성함

그러면 이러한 복음의 말씀들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날마다 큰 일 만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인가? 왜 기러기의 털 몇 개가 빠져서 애완용 집새가 된 것처럼 독수리 날개치고 날아오를 사람이 집에서 참새처럼 이리저리 뒹굴 뒹굴하며 손바닥으로 마룻바닥 면지만 파고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전략한 것인가? 한마디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여 말씀을 듣고 알기는 하여도 그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전 한국에서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심방을 갔었다. 관췌은

주의 주되심, 기적

첫 번 기적에서 나타난 일이다.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아는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일을 말하지만 그는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 뒤처리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십시오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주되심(Lordship)을 결코 세상 앞에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셨던 것이다. 그렇다. 주님의 주님 되심이 인정되는 곳에 기적과 능력과 은혜, 귀한 간증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언제 주의 주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까?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함 위에 드러나는 것이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의 기적도 돌 항아리 손 씻는 물을 뜨다가 연회장에 전달할 정도의 단순한 말씀의 순종밖에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과 삶에 왜 세상에 치이는 것만 남았고 기적과 능력의 일들은 볼 수가 없었던 것인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말하지만 실제 이유는 한가지로 명백하다.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주의 능력이 드러날 길이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란 것이 '어떤 문제가 터지지만 하면 쫓르륵 달려와 해결사(?) 일 을 감당해 달라는 요청'과는 다

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런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느냐?"는 답을 주실 따름이다.

세상승리의 원천, 순종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과 기쁨이 존재한다. 세상이 주는 기쁨도 상당히 유혹이 될 만하다. 그러나 실제 최고의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주는 기쁨을 맛본 사람이라면 그것은 그저 시시한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다. 세상을 이길 힘,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비결이 있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말씀이다. 복음이다. 그런데 그 말씀의 복음을 아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진실로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이 그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행함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더불어 그렇게 믿고 행하는 그에게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실 것이다. 당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davidnjeon@yahoo.com



목회서신

“생각의 시력”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며칠 전에 안경을 쓰지 않고 한밤중에 어떤 장소를 찾아가다가 길가의 싸인 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들에게 안경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안경을 쓰지 않고는 사물을 제대로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물을 식별하는 눈의 시력뿐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생각

의 시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의 시력이 나쁘면 숨 가쁘게 밀고 들어오는 파도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에 의하여 압도되어서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눈의 시력이 나쁠 때 안경을 쓰는 것처럼 생각의 시력이 나쁠 때는 믿음의 렌즈를 끼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생각의 시력이 나쁠 때는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만 보이고 어려운 상황의 배후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토록 우리가 자주 낙심하고 절망하는지 아십니까? 생각의 시력이 나빠서 어려운 상황의 배후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어려운 상황의 배후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계시니까? 만약 그렇다면 현재 사단의 전략에 휘말리고 있다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생각에 믿음의 렌즈를 끼워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렌즈는 어려운 상황 배후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의 렌즈로 현실을 바라보면 비록 우리는 길이 없는 듯 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후6:10)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시력에 끼워야 할 믿음의 렌즈는 믿음을 창시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그토록 많은 역경의 고비들이 지나가고 또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언젠가는 세월과 함께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기쁨과 찬송을 부르는 복된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렌즈를 끼고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에 빼앗겼던 마음과의 작별을 고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만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장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인도해가고 계심을 믿음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렌즈로 절망의 계곡에서 빠져나와서 소망의 언덕에 오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내 가슴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아이티 갭단, 납치선교사 몸값 1700만불 요구

미국 오하이오주에 본부를 둔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CAM(Christian Aid Ministries) 소속 선교사 등 17명이 아이티 갭단에 의해 납치됐다[본지 1847호 6면 참조]. 갭단은 이들의 몸값으로 1인당 100만 달러씩, 총 1700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AM은 20일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티 현지 상황을 전하는 한편, 납치된 이들을 위한 긴급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CAM은 “사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당국 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인질로 잡힌 이들이 무사히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앞서 CAM 소속 미국인 16명과 캐나다인 1명은 지난 16일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의 보육원을 방문하고 나오던 길에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됐다. 17명이 한꺼번에 납치된 건 최근 몇 년간 아이티에서 일어난 납치 사건 중 최대 규모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피랍자 중에는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포함해 미성년 아동 5명과 여성 6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은 납치될 당시 선교단 중 한 명이 소셜미디어인 왓츠앱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는 “지금 인질로 잡혀 있다. 그들이 우리 운전기사를 납치했다. 우릴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호소했다.

납치 배후로는 범조직 400 마우조가 지목되고 있다. 이 갭단은 지난 4월에도 가톨릭 사제 5명과 수녀 2명, 사제의 친척 3명을 납치하기도 했다. CAM 측은 “납치범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께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센이나 화이자나 모더나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주사)를 골라 맞을 수 있다. 이번 주 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접종과 관련해 중대한 결정 사항을 넘겨받았다”며 “그들은 어떤 부스터가 가장 좋은지 궁금해한다”고 전했다.



미국 질병예방통계센터(CDC)는 지난 21일 부스터 접종을 공식 권고하면서 어떤 백신을 맞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CDC는 최소 2개월 전 존슨앤존슨(얀센) 백신을 맞은 18세 이상은 모두 부스터를 맞도록 권장했다. 화이자·모더나 접종자는 65세 이상이 추가 접종 대상이다. 18-64세의 경우 개인 병력 때문이든 직업 때문이든 당뇨병처럼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취약층도 부스터를 맞도록 했다.

기존에 안센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으로 부스터를 맞았을 때 중화항체 수준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캘리포니아대 전염병 전문가 모니카 간디 박사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부스터든 맞을 수 있다”면서도 “존슨앤존슨 다음에는 말할 것도 없이 mRNA가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안센 접종자가 같은 안센으로 추가 접종을 한 경우에도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는 72%에서 94%로 상승했다. 미 식품의약국(FDA)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안센 2차 접종을 승인했다.

CDC가 부스터 대상자에게 백신 선택권을 준 것은 각자 사정을 감안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로이터는 “의사가 특정 부작용 위험을 가진 환자에게 다른 백신을 맞도록 조언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고 부연했다.

예를 들어 젊은 남성, 특히 mRNA 백신과 관련한 희귀심장염증 부작용 위험이 더 높은 12-29세 남성은 안센 백신을 선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드물게 나타나는 해도 J&J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 위험이 더 높은 젊은 여성은 mRNA 부스터를 맞을 수 있다.

mRNA 백신을 맞았다면 모더나와 화이자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는 숙제가 하나 더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전염병 전문가이자 FDA 백신 자문단 일원인 폴 오피트 박사는 mRNA 백신 접종자의 경우 부스터 효과가 화이자를 맞은 고령자에게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애초 mRNA 백신을 맞은 젊은 층에게 ‘모더나냐, 화이자냐’는 선택하기 나름이다. 로이터는 “화이자 백신의 보호는 모더나보다 빨리 약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둘 다 임원과 사망을 예방하는 데는 여전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모더나와 화이자의 효과 지속 기간 차이가 접종 간격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고 본다. 화이자는 1차와 2차 접종 간격이 3주, 모더나는 그보다 긴 4주다.

화이자 부스터 투약량은 1, 2차 때와 동일한 회당 30마이크로그램이다. 모더나는 1, 2차 때 각각 100마이크로그램을 주사했지만 부스터는 절반을 투약하는 것으로 승인됐다. 로이터는 “모더나의 저용량 부스터가 원래 주사와 동일한 내구성을 가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 테네시주 밴더빌트대 의료센터 백신 연구원 캐서린 에드워드는 “낮은 용량이 높은 용량의 모더나 주사와 관련된 발열 및 신체증상과 같은 단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외신 “오징어게임 이해하는 법” 설명

위싱턴포스트(WP)가 미국 시청자들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더 잘 이해하는 법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WP는 22일 홈페이지에 ‘한국인이 아닌 이들을 위한 오징어게임의 숨은 언어와 신호 해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WP 도쿄지국 지사장으로 나가 있는 한국계 기자 미셸 예희 리가 작성했다. 그

는 드라마 속 장면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해당 장면 속 등장인물의 이름이 갖는 의미와 인물 간 호칭 등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특수한 의미를 설명했다.

기사는 등장인물 ‘한미녀’와 ‘오일남’의 이름을 대표 사례로 든다. 외국 시청자들은 금방 눈치 채기 어렵지만 한국 시청자들은 ‘미녀’와 ‘일남’이라는 이름에서 캐릭터의 특성을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쌍문동의 자랑’으로 등장하는 상우가 서울대에 갔다는 설정에 대해서 쌍문동과 서울대가 각각 평범한 근로자층의 동네와 출세의 발판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즉, 상우는 가난한 배경을 가졌지만 열심히 노력해 출세한 인물이라고 설명해주는 것이다.

기사는 또 주변 사람들을 ‘사장님’으로 부르는 알리가 상우를 ‘형’으로 부르며 되는 과정을 언급하면서 한국 사회 내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와 형이라는 호칭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설명했다.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달고나’와 ‘간부’ 등에 대한 설명도 있다. 한국인이 아니면 생소할 수밖에 없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 외국인들이 오징어게임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미셸 예희 리 기사는 서울 태생이다. 현재는 아시아계미국인언론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애플랜드 총격 사건으로 한국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숨졌을 때 아시아계 미국인의 시각을 담은 기사를 심층 보도하는 등 미국 주류 언론에 아시아계의 시각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트윗 뺀 트럼프... 직접 만든 SNS 출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서 자신의 계정이 정지 당하자 이에 반발해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대안 플랫폼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출시 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은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미디어&테크 놀로지 그룹(TMTG)이 지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TMTG 보도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트루스 소셜을 직접 만들었다”고 자체 앱 출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는 탈레반이 트위터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 대통령은 침묵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기존 SNS가 자신과 지지세력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기 내내 SNS를 즐겨 사용해왔다. 주요 정책을 발표하거나 정적을 비난할 때도 트위터를 이용했다. 재임 당시 그의 트위터를 팔로우했던 구독자는 약 8800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SNS 정치’는 지난 1월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난동 사건 이후로 중단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벌이자 트위터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폭력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그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페이스북은 2023년 1월까지 그의 계정을 정지했고, 유튜브는 무기한 사용 중단 조치를 내렸다.

FT에 따르면 내년 초 정식 출시하는 트루스

소셜은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TMTG 측은 해당 앱에 대해 “정치이념에 대한 차별 없이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정직한 글로벌 소통을 장려하는 미국의 ‘빅테크’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아시아계가 바뀌버린 뉴욕 롱아일랜드

인구 1000만명의 메트로폴리스, 뉴욕은 롱아일랜드, 맨해튼, 스탠포아일랜드 등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맨해튼은 금융자본이 모인 세계 경제의 중심이고 스탠포아일랜드는 부자들의 저택이 밀집한 곳이다. 맨해튼에 가까운 롱아일랜드 서쪽 킨즈는 맨해튼 금융가와 브롱스 공업지대로 출근하는 근로계층이 사는 지역이다.

킨즈 동쪽의 롱아일랜드시티는 통칭 ‘메트로 뉴욕’에 포함되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엄연히 독립된 도시다. 온화한 해양성 기후 덕분에 예로부터 채소재배 등 농업이 발달해 뉴욕의 식량공급지 역할을 했다. 주로 앵글로색슨계 백인,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거주하던 곳이다. 뉴욕이 전통적으로 진보성향을 띠는 대도시임에도 이 지역 주민들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성향을 드러내왔다.

그런데 최근 이 도시의 인구 구성이 바뀌면서, 전통적인 ‘롱아일랜드 표’ 특징들이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현재 롱아일랜드시티 거주 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인종은 백인이 아니라 중국 한국 등 아시아계다.

2010년 이전 6.5% 정도에 불과했던 아시아계 주민이 현재 34%로 5배 이상 늘었다. 이들의 직업도 주로 맨해튼 지역으로 출근하는 중산층 이상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상류층이다.

맨해튼과 뉴욕 북부 브롱스에 살던 이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롱아일랜드시티의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다. 맨해튼에 비해 서너 배 저렴하던 집값이 2배 이상 올랐고, 중소 규모였던 주택들의 모양새도 대형 주택 단지로 속속 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돈 많은 아시아계가 주로 찾는 고급 아시안 레스토랑, 카페 등이 도심에 차지하면서 도시 풍광도 크게 바뀌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인구 구성의 변화로 저렴한 주택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던 롱아일랜드시티의 풍광이 초고층 고급 아파트 빌딩이 들어선 곳으로 바뀌고 있다”며 “허드슨 강 건너편의 맨해튼을 연상케 한다”고 전했다.

롱아일랜드시티의 인구 구성을 바꾸고 있는 아시아계 대부분은 대만 및 중국계, 한국계 고학력자들이다. 맨해튼의 복잡함을 벗어나 좀 더 안락한 주거지를 찾던 이들에게 롱아일랜드시티는 최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단 롱아일랜드시티 뿐 아니라 전체 뉴욕, 나아가 미국 전체의 아시아계 인구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모양새다. 미국 연방정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뉴욕 전체 인구는 2010년 이후 뚜렷한 감소세인 반면, 아시아계는 7.7%가 증가했다. 미국 전체 아시아계 인구도 같은 기간 1.5% 늘어 2000만명을 돌파했다.

뉴욕타임스는 “고학력 중산층 이상의 아시아계 인구가 미국 대도시 외곽 백인 거주지역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이들 지역의 산업구조와 주택가격, 정치적 성향까지 바뀌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급변하는 세상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특히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변화는 큰 긴장감을 유발시킨다. 과거의 추억에 안주하며 평안을 찾으려는 자들은 변화를 거부한다. 그러나 급히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변화란 더 이상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과거 인력을 사용하던 일들을 무인자동으로 대체하고 있다. 은행 일부터 장보는 일까지 삶의 방식이 변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미 변화에 익숙해져 있다.

크리스천들은 변화하는 세상이 생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변화가 상식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어떤 영적의미를 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화는 극히 미래지향적이다. 나름 실력을 갖추고 있는 소수가 주도권을 지니고 있다. 대중은 선택권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주류의 흐름을 따라갈 뿐이다.

기독교는 2000년이란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성경은 종말을 포함하여 미래에 대한 진리도 언급하고 있지만 대부분 과거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중심하기 때문에 과거 저항적인 느낌을 준다. 성경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스도와 초대교회를 중심한 사건들 모두 현재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증거와 논리를 중시하는 개인일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 세상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기독교와 성경의 진리는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지 반문할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다. (1)거짓돌이 되는 과거의 것은 과감하게 버려라! (2)세상을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 (3)밝은 미래를 위해 혁명적인 변화라도 수용하라! 비록 신앙을 지닌 성도이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결국 도태된다는 위기의식을 지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매우 궁금하다.

복음, 다른 복음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급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복음은 오직 한 가지이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 외에는 없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복음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이다.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매우 복잡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집약된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복음은 오직 한 가지, 즉 십자가 복음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초대 교회에 이미 '다른 복음'이 등장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갈라디아서 1장 6-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은혜의 십자가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복음이라 생각하여 그대로 믿고 따르는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완벽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인간이 만든 것 중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모두 제한적이고 상대적이다. 그렇기에 주어진 복음이 지닌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 복

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달라야 한다. 직장동료에게 전하는 것과 문화권이 전혀 다른 해외에 사는 자들을 찾아가 전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그러나 누구에게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전달자의 마음은 동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교회역사는 선교역사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다. 교회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선교를 통한 복음의 확장을 추적해가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선교와 전도를 통해 교회 역사가 지속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난 2천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모두 동일한 복음 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자들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자신 스스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눈과 마음을 여시어 참된 진리를 깨닫고 수용하게 하신다고 믿었다. 후자의 경우 복음을 전달받는 자들이 지닌 이성과 논리를 통해 제대로 설득하거나 감정적인 요소를 제대로 사용하면 상대가 진리를 수용하기에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이토록 서로 상충되는 방법이 초대 교회에서 가장 먼저 시도된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지속되어왔다. 놀랍게도 현대교회 역시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특히 속도 지향적

려진 기복신앙과 변영신앙이다. 절대자를 의지하려는 종교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기희생을 요구하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란 사실 앞에 크게 실망할 수 있다. 언제든 자신의 기준과 기대와 다르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 일그러진 복음은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

교회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전파의 사명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변해야 한다. 불필요한 교회의 전통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이 시대의 문화를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는 눈을 지녀야 한다. 예배의 형식부터 교회당의 구조까지 현대인들의 눈높이를 의식하여 이질감을 없애는 것이 좋다. 복음이 삶의 상황과 현실에 다가서고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45)

부제: 교회가 가르친다!(31) - 복음 전파의 방식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복음 전파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무엇보다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혹시 다른 복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는 인간중심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오직 하나이다. 이미 복음에 대해 여러 차례 성경공부를 했고 매주 설교를 통해 확인받기에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매우 깊다. 복음이 우리 삶과 교회를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주어진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처한 형편에 따라 매우 다른 방법과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특정상황에서 복음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변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와 함께 불변하는 심오한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는 그 누구보다 이 사명을 신중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자신이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역사를 통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들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변화된 사람이 사회와 가정을 변화시킨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닌 자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과 교회를 세우실 것을 확신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전하는 방법은 친히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변화된 자신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복음의 능력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9면으로 계속)

복음전달방법 2가지 방향...자신이 먼저 복음의 능력 체험해야 전파 가능 변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와 불변하는 복음의 진리내용 분명히 파악해야

음은 죄인을 위해 허락하신 선물이다. 철저한 검사를 걸쳐 완벽한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복음전파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를 확장하는 소중한 사역이다. 모든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한다. 복음의 능력을 지니지 않는 교회는 문화센터 또는 진목단체에 불과하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닌 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자신이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주어진 은혜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가장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건이 바로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음 전달 방법의 변화

복음 자체가 귀중한 만큼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상태이다. 복음전달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자에게 잠시 복음을 전할 때는 오래 사귀 친구를 의도적으로 만

을까? 아니다.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달리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복음 자체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이다. 양쪽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였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과 그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

그렇다면 그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복음전파의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랐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복음전파를 위해 하시는 일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전파를 하는 자들을 위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자의 경우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는 자에게 역사하시어 성령을 통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할 것 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지녔다. 후자의 경우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듣는 자의 마음을 잘 열어주시는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전자의 경우 복음을 전달받는

으로 변화되는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결과를 얻는 효과적인 방법이 대세이다. 만일 선교지에 어느 정도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대단한 성과가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복음 자체에 대한 이해와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라. 복음에 대한 이해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복음전달자의 태도와 방법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일그러진 복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한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물질이나 자녀 또는 건강의 복이 아니라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 성공하도록 보장하는 분이 아니다. 산상수훈에 잘 드러나 있듯 성경적인 복은 영적이며 내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 있게 복음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어 결국 일그러진 복음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널리 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Galbraith, Danimok, Mungo, Bessie, Benel, Boston, Andok, Alkansa, Ankery, Yongsang, Killen, Westminster, Tacoma, and others.



“With Corona-19 문화: 종말론적 조명(Outlook)” (1)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우리는 지금 급세기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Corona-19 Pandemic 상황을 겪고 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 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세계 보건기구는 2020년 1월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3월에는 Pandemic, 즉 세계적 범 유행으로 격상시켰다. 1년 10개월이 지나는데 2021년 10월초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이되면서 2억3천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475여만 명의 사망자(치사율 2.05%)가 나타났다. 비대면(Un-tact),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New normal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가야하는 With-Corona 시대를 맞이할 정도로 지구촌은 현재 뒤흔들고 있다.

세상에서의 Utopia(우, 없다+topos, 장소=어디에도 없는 이상적 사회)를 꿈꾸었다. 산업혁명을 통해 인류문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지만 인간사회 전반은 오히려 다양한 지능범죄와 각종 크고 작은 테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계급사회를 형성하기에 이르자, 마침내 존 슈투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은 의회연설에서 인류문명이 Dystopia(dys, 나쁜+topos, 장소)를 향하고 있음을 경고하기까지 했다.

그의 경고대로 지금부터 25년 전 1996년 7월에 영국에서 최초로 유전자 복제기술로 만들어진 Dolly Sheep(돌리양)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 그 이후 발전된 의학, 생태학 기술로 인해 인간복제도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아낸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빛에서부터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조화, 질서, 협력력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며 상상하도록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번영토록 명령하셨다(창 1:28).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문화적 사명(Cultural Mandate)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인간은 각자의 사명에 충실하되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소통하며(시19:2-4), 질서 있게 협력과 조화를 이루며 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을 이루는 길이다. 일방적인 이익을 위해 어느 한 종을 파괴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공생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사

생태주의자 예수”(Der Ökologische Jesus)라는 책을 유익하게 살펴보았다. 물론 그의 해석학적 시각에 동의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가운데에 예수님의 자연사랑의 삶과 산상보훈에 나타나는 평화의 마음으로 인간 욕망을 제한하며, 생태계의 파괴를 막고 오히려 생태계와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연 동화적인 삶을 이상적인 대안으로 제안하는 면에 대해서 아주 감동 깊게 도전을 받았고, 교역학적 구원의 개념이 피조물의 구축으로 확대되는 장을 펼친 것만으로도 환영할 만하고 주의를 끌 만했다.

생태학자들은 지금도 공장에서, 혹은 자동차가 뿜어내는 매일 1억 톤의 온실가스로 인해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로 인한 온난화 현상, 이상기후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속의 날 기다리고 있는 종말론적 상황 생태계 파괴로 악성바이러스가 제2, 제3의 팬데믹 일으킬 수 있어

8:22-23). (롬8:22-23)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속량,redemption)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의 탄식, ‘우리 몸의 구속’이란 다소 신학적인 단어가 등장한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속의 날, 즉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consummation)을 기다리고 있고 그 때까지는 원하던 원치 아니 하듯 함께 탄식해야 할 종말론적 상황이다.

즉, 우수한 두뇌를 가진 인간만을 대량 복제하는 위험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조: 질서, 조화, 상생의 생태계

원래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31)라고 하셨다(창 1:31).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충분히 좋았음을 의미한다.

(롬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모든 자연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내재되어 있기에 그 신비로움을 자

멸에 충실해야 온 우주만물은 건강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신학계에서는 생태신학(ecological theology)이라는 다소 생소한 영역을 도전하며 발전시키고 있다.

‘생태학’(ecology)은 원래 ‘오이코스’(oikos, 집)란 말에서 나왔다. 우주 생태계(자연, 생물, 인간)를 하나의 집으로 비유하여 유기물, 무기물이 한데 어울려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가족관계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가 가톨릭 사제에서 성공회 사제가 된 매튜 폭스(Matthew Fox)인데, 그의 신학은 다분히 범재신론(Panentheism)에 가까워 필자의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동의하기가 어렵고, 또 여기서 논하려는 주제도 아니다.

최근 필자는 독일의 프란츠 알트(Franz Alte, 1938-)의 “

인해 남극 빙하가 지난 25년 동안 3조 톤 가량이 녹아내렸고 해수면이 1cm 정도 올랐다고 보고한다.

미항공우주국(NASA)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21세기말(2100년)이 되면 해수면이 크게 보면 2m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해안 도시는 수장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루에도 100종류의 동, 식물이 멸종(현재 200만종)되고 있고, 매일 5만 에이커(약2만 헥타르, 6천5십만평)의 사막을 만들어내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고, 나아가 생태계의 파괴로 악성 바이러스가 제2, 제3의 Pandemic wave를 일으킬 것인데, 백신개발이 악성바이러스 발생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한 진실이다.

johnjc@yahoo.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새 안식일

안식은 쉬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쉬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안식하다 세상에 태어나나보다. 그렇다. 하루의 시작에서도 하나님의 법칙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저녁에 쉬고 아침에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시작은 저녁으로부터이다. 그 말은 우리의 시작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쉬는(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활동보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먼저라는 말일 것이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신 사례가 많다. 아담이 잠자는 동안에 하와를 데려다 놓으셨고 요셉은 자는 동안 꿈을 꾸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견했고 솔로몬도 잠자는 동안 지혜를 얻었다. 그 외에도 요셉, 마리아 사도 바울... 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맘 놓고 푸욱 잘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 사람들은 왜 안식을 하지 못할까? 일초가 아깝다고 목숨 내걸고 스피드를 내서 차를 몰고 와 우리 겨우 TV 앞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앉아 있는 걸 안식한다고 말할까? 우리는 한 주간동안 언제 안식해야 하나... 주말에는 가게 문을 열어야 하나 닫아야 하나? 많은 사람이 좀 더 편안하고 나은 삶을 위해 죽음을 다해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며 행여 남들보다 뒤쳐질까봐 일을 멈추질 못하고 산다. 하루 동안 노트북이나 이메일 SNS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나? 이런 저런 일들로 ‘정신없이 바빠요’를 입에 달고 살며 심신이 지치고 피곤에 절어 살면서도 정작 안식할 시간이 주어지지 못하니 안식을 누릴 줄 모르지 않는가.

우리의 진정한 안식을 뭘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얼 하셨을까? 찾아보니 주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마 12:12).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손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 그분의 가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도 행하셨다. 인생에서 가치란 무엇일까? 가치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과 그 존재하는 목적이 일치될 때 거기서 가치가 발생한다. 시계가 고장 나면 버러듯이 사람이 목적이 상실하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리라.

그렇다. 그래서 가치는 내 목적을 잃지 않으려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자꾸 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내 속에 가치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많이 하여 목적과 일치된 삶을 살수록 우리 진정한 새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알고도 행하지 못할까? 그것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 이리라. 희생이 따라오고 물질을 쓰고 몸을 쓰고 시간을 써야 그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새 안식일에는 선을 하나씩 행하자. 선을 행하려면 내 안에 무수히 많은 열 가지 된 일들과 맞바꾸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새 안식일은 내 노력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아닐까.

changsam01020@gmail.com

| | | | | | | | | |
|--|---|---|---|---|---|---|--|--|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세베르교회 담임목사: 이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오.저녁예배: 오후 8:30 금.일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 |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오.성경공부: 오후 08:00 수.오.저녁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 뉴욕부르크리제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예예배: 오전 02:00 수.오.예배: 오후 08:45 금.일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 | | | | |
|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예예배: 오전 10:45 수.오.예배: 오후 8:00 금.일예배: 오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오.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일-토) |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성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오.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일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 1부예배: 오전 10:5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찬양찬양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오.찬양공부: 오후 8:30 | 베이스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청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8:00 수.오.저녁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목회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8:30 |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오.예배: 오후 8:00 금.일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 어린양 개혁 교회 담임목사: 유승래 EM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Tel. (845)848-2013 |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토) 주일 2부 오후 1:45(토) 주일학교 오후 1:45(토) 청년예배 오후 3:15(토)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후 1:45(토) 청년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오.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
|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오전예배: 오전 7: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11:30 수.오.기도회: 저녁 9:00 7:14(중부기도회): 아침 7:40 요.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 토론토 가든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오.후예배: 오후 2:00(영미) 수.오.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일예배: 오전 7:30 |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오.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미)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오.예배: 오후 7:00 금.일기도회: 오후 9:00 |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하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 | | |



목회서신

고민스러운 일을 만날 때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고민이란 말은 우리네 일상에 친근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인생은 늘 고민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을 초월하여 누구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고민은 고생스러운 생각입니다. 고민은 고통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으로 인한 심적 결과입니다. 고민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합니다. 고민은 현실이지만 백해무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실제로 인

해 고민합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삐뚤어짐으로 고민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심각한 경제적 이유로 고민하기도 합니다. 고민하는 일은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고 계시합니다. 성경은 고민과 걱정의 무용함을 지적하며 고민에 직면하는 우리네 인생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민에 대해 여러 가지들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고민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많아도 고민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예수님이 고민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의 지적처럼 성경에는 삼백육십다섯번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있고 있습니다. 날마다 고민 근심 걱정거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담담하게 고민스러운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고민되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미 일어난 그 고민스러운 상황을 잘 소화하고 극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둘째로 왜 이런 고민스러운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고 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고민스러운 일의 발생은 우연이 아니고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돌이켜 보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음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어떤 고민은 저의 실수나 부덕한 태도나 인격적 모자람에 기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상대방의 미숙함에 의지하게 대처하지 못해서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은 자연스럽게 인과응보와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될 순종하거나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한 고민임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때는 즉시 회개하고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철저한 순종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선처를 기다리곤 합니다.

하지만 가끔 내가 더 기도하고 마음 써 주의를 할 때 강한 사탄의 저항으로 인한 고민스러운 현실이 나타남을 깨닫곤 합니다. 하나님의 교육적 징계로 인한 고민스러운 일은 회개함으로 회복이 되고 기쁨의 발생은 우연이 아니고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돌이켜 보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음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어떤 고민은 저의 실수나 부덕한 태도나 인격적 모자람에 기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상대방의 미숙함에 의지하게 대처하지 못해서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은 자연스럽게 인과응보와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될 순종하거나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한 고민임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때는 즉시 회개하고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철저한 순종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선처를 기다리곤 합니다.

찾으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고민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나의 고민스러움에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나로 인한 다른 분들의 고민되게 되는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잘 헤아리지 않거나 못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민의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고민되게 하면 그도 나를 고민되게 하는 법칙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고민하시게 하는 일은 우리 자신들에게 결코 복이 아님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민스러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근심되게 고민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엡 4:30).

cyd777@hotmail.com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제19회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하나님,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제19회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총회장 오병익 목사 선출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제19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서부지역에 있는 남가주벨엘교회(담임 오병익 목사)에서 ‘하나님,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총회는 미주지역 및 캐나다, 멕시코에 흩어져 있는 대의원들과 한국 교단 총회장 이상문 목사와 총무 이강준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18회기 미주 총회장 송영진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는 미국 동부지방교회장 장동신 목사의 기도, 미국 서남 지방교회장 양홍규 목사의 성경 봉독에 이어 한국 교단 총회장 이상문 목사가 “주안에서 인정 받은 사람”(롬16:10)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인정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성경이 기록돼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인정 받는 목회자로 살아가자”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미국 서부지방교회장 이윤수 목사의 헌금기도, 공로패 수여,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유석형 목사의 축하 영상, 교단 총무 이강준 목사의 축사가 이어졌고, 미주총회 전총회장 박용덕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은혜가운데 마쳤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대면으로 모인 총회이기에 참석한 모든 대의원들에게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500달러의 격려금이 각각 주어졌고, 개척지원금으로 각 지방회

별 1000달러와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각각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총회 안전으로 상정된 캐나다 지방회를 동부와 서부로 분리하는 안전을 허락했고, 총회 정족수를 2/3에서 과반수로 조정했으며, 각 지방회의 정기 지방회 시기를 매년 7월중에 소집하기로 했다.

또한 미주총회 내 이중교적에 따른 교직자들의 대의원권은 허락하되 피선거권을 제한시켰고, 내년 미주총회 20주년을 준비하는 20주년 특별준비위원회를 결성해 미주총회의 위상과 격에 맞는 다채로운 대내외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제19회기 신임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오병익 목사(미국 서남지방회, 남가주벨엘교회) △부총회장 장동신 목사(미국 동부지방회, 오늘의목양교회) △서기 강양규 목사(미국 서남지방회, 남가주제약교회) △부서기 박환우 목사(미국 서부지방회, 아리조나주의교회) △회의록서기 임희철 목사(미국 서남지방회, 디나누는교회) △회계 이홍식 목사(미국 동부지방회, 한길교회) △부회계 김형민 목사(캐나다지방회, 캐나다한길교회) △총무는 김영일 목사(미국 서남지방회, 더섬기는교회).

(기사제공: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예장백석 미주동부노회 제61회 가을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새회원부 신설, 목사임직 3명 발표

예장백석 미주동부노회 제61회 가을 정기노회

예장백석 미주동부노회 제 61회 가을 정기노회가 10월 25일 오후 4시 뉴욕사자교회(담임 이상남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목사고시를 합격해 31일 목사 임직하는 받는 온태희, 백경희, 이대은 강도사가 참석해 인사했으며 신임회원으로 윤권진 유동혁 전도사가 가입됐다.

서기보고에서 가스펠장로교회(신우철 목사)와 네이플스산인교회(임준환 목사) 장로임직을 보고했다.

또 현의안(현의자 장규준 목사)으로 ‘노회 새회원부’ 신설이 통과됐으며 담담 사역자는

속해주심으로 사랑해주신다 둘째, 우리를 보호해주심으로 사랑해주신다 셋째, 그러므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한다”고 강조하고 “이중직을 하며 힘들게 사는 목사들이 많다. 내게 주어진 이 목회, 증인의 삶을 열심히 외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식 목사(조지아 시찰장) 집례로 성찬예식을 한 후 3부 회의가 노회장 김종현 목사 사회로 진행됐다.

이창남 목사의 개회기도 후 회원점명, 개회선언, 윤리강령 낭독, 회순채택, 각부보고, 안건 처리, 신안건 처리, 기도회, 회의록 통과, 폐회기도 임준환 목사(증경노회장), 식사기도 김지태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회계보고는 총수입 11,488.62달러, 총지출 5,707.65달러, 잔액 5,780.97달러로 보고했다.

미주동부노회는 뉴욕(29명), 뉴저지(9명), 조지아(7명), 캐나다(3명), 필라델피아(6명) 등 5개 시찰과 선교사 회원(3명), 한국거주(3명) 등 총 60명의 노회원이 소속돼 있다.

(유원정 기자)

속해주심으로 사랑해주신다 둘째, 우리를 보호해주심으로 사랑해주신다 셋째, 그러므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한다”고 강조하고 “이중직을 하며 힘들게 사는 목사들이 많다. 내게 주어진 이 목회, 증인의 삶을 열심히 외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식 목사(조지아 시찰장) 집례로 성찬예식을 한 후 3부 회의가 노회장 김종현 목사 사회로 진행됐다.

이창남 목사의 개회기도 후 회원점명, 개회선언, 윤리강령 낭독, 회순채택, 각부보고, 안건 처리, 신안건 처리, 기도회, 회의록 통과, 폐회기도 임준환 목사(증경노회장), 식사기도 김지태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회계보고는 총수입 11,488.62달러, 총지출 5,707.65달러, 잔액 5,780.97달러로 보고했다.

미주동부노회는 뉴욕(29명), 뉴저지(9명), 조지아(7명), 캐나다(3명), 필라델피아(6명) 등 5개 시찰과 선교사 회원(3명), 한국거주(3명) 등 총 60명의 노회원이 소속돼 있다.

(유원정 기자)



Zoom으로 진행된 '스마트폰 사용법' 세미나 모습과 강사 윤승준 선교사

‘크리스천이 꼭 알아야 할 스마트폰 사용법’

본사주최 스마트폰Zoom세미나, 강사 윤승준 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김성규 목사)이 주최한 ‘크리스천이 꼭 알아야 할 스마트폰 사용법’ 세미나가 2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미서부시간) Zoom으로 진행됐다. 강사로는 IT전문사역자인 윤승준 선교사(재미있는 IT 대표)가 초빙됐다.

본지 발행인 김성규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윤승준 선교사님과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축복한다. 이 강의를 통해 새로운 눈을 뜨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는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전도와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한 뒤 기도함으로 세미나를 시작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윤승준 선교사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질문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관심은 IT다.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그 중심엔 IT가 있다. IT를 모르면 불편한 세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선교사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나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 이웃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하나씩 알려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기에 크리스천들은 열심히 배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윤선교사는 △말로 글쓰기 △스마트폰으로 통역하기 △성경명 사용하기 △인공지능 스피커 △스마트 플러그 등을 소개하며 스마트폰 구글에 들어가 앱을 다운받고 셋팅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한편 윤 선교사는 세미나의 정해진 시간으로 인해 상세하게 스마트폰의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을 감안, 금번에 카카오톡 완전정복’을 출간했다. 카카오톡의 기본 기능은 물론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방법과 함께, 몰라서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정말 편리한 기능까지 카카오톡의 모든 것을 담았다.

책 구입은 카톡(카카오톡 ID Joshua7231)으로 신청하면 되고 책 구입자에게는 전자책도 카카오톡으로 제공한다. 특히 이 책의 수익금 대부분은 선교사에게 새 태블릿(Tablet)을 후원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미있는 IT 대표인 윤승준 선교사는 41년 경력의 IT전문가로 세계 최초 찬송가 자동반주기, 골프거리 측정기, 버스 도착 알리미 등을 개발했으며 저서로는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사용하기’, ‘스마트폰이 재미있게 놀자’의 다수가 있다.

(이성자 기자)

남가주감리교원로목사회 10월 월례회

남가주감리교원로목사회(회장 민병렬 목사)의 10월 월례회가 지난 11일 오전 10시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에서 열렸다.

김태근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에서는 이인기 목사가 기도하고 남성 4중창의 특송후에 이홍숙 목사가 ‘애통과 위로’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예배는 김영대 목사의 축도로 마치고 애찬의 시간에

서는 박우성 목사가 기도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중단됐던 월례회는 지난 8월부터 다시 시작돼 한 달에 한번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방문하면서 개최되고 있다.

11월 월례회는 드림교회(정영희 목사)에서 열리며 금년 마지막 월례회 겸 총회는 12월 13일 로스펠리즈교회(신병욱 목사)에서 열린 예정이다.

(정리: 박준호 기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군목사역 세미나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이하 GMU, 최규남 총장)는 졸업 후 군목사역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해 군목사역 세미나를 지난 21일 오후 2시 30분 GMU 강의실과 온라인 Zoom 컨퍼런스 방식으로 열었다.

세미나 강사는 GMU가 속한 교단인 국제총회(PCIGA) 목사이며 현역 육군소령이자 아프가니스탄 및 독일 등지에서 군목으로 사역하고 현재 버지니아에서 사역중인 김형주 군목이 참여했다.

이날 김형주 군목은 △군목이란 △군목이 되기 위한 조건 △군목 사역의 필요성 △군목 사역사례 △군목 사역준비를 위한 절차 등에 대해 강의하고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해 매우 상세한 부분까지 설명했다.

GMU는 현재 미 연방 교육국 USDE가 인정 학위 인가기관인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로서 유학생을 위한 I-20 발급과 연방정

부 학비보조인 PELL GRANT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학비보조 CAL GRANT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714)525-0088(Ext 101), admissions@gm.edu
(기사제공: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개혁의 땀방울 ...

(7면에서 계속)

자기중심의 삶을 살던 자가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기쁘게 그 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런 경험 없이 교회생활에 익숙해질 수도 있다. 직분을 받아 칭찬받는 봉사자가 될 수도 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종교적 행위에 불

과하다. 복음전도의 열매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 이상이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세상은 더욱 급변할 것이다. 그럴수록 영원히 불변하는 십자가 복음에 뿌리를 내린 신앙인으로 굳건히 서야 한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즐겁고 복된 일이다.

covenantcho@yahoo.com

동부교계 기사판

박문근 목사 별세

박문근 목사(사진)가 87세를 일기로 10월 24일 주일 오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박 목사는 한국에서 목회하다 1987년 미국으로 와 1993년 뉴욕산동교회를 개척해 목회했다. 뉴욕교협 서기를 역임했으며, 은퇴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뉴욕원로성직자회 회장을 역임했다.



고 박문근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뉴욕신학교(NYTS)에서 목회학박사과정을 공부했다. 1959년 예장 통합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한국의 여러 교회와 단체에서 사역하고 노회장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영애 사모와의 사이에 1남 2녀가 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제32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신임회장 김경수 목사 "신학교와 동문위해 수고"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제32회 정기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제32회 정기총회가 10월 18일 저녁 7시 뉴욕새사람교회(이종원 목사 시무)에서 현장과 줌을 통해 동시에 열렸다.

교사에게도 후원금을 전달했다. 주요 신학교 행사에 참가했으며 동문들의 교회행사 및 경조사에도 참가했다고 보고했다.

1부 예배는, 인도 정인수 목사(부회장), 기도 김경수 목사(총무), 성경봉독 김경미 전도사(부회계), 설교 장규준 목사(회장), 축도 이원호 목사(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감사 노기승 목사는 감사보고를 했으며, 회계 김은숙 전도사가 재정보고를 했다.

장규준 목사는 "하나님의 열쇠, 자기부인"(빌2:5-1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전례에 따라 증경회장을 대표해 이원호 목사가 신임 회장단을 추천했으며, 만장일치로 받았다. 새 임원은 △회장에 김경수 목사(14회) △부회장 정인수 목사(24회)와 김은숙 전도사(25회) 등이다. △감사는 노기승 목사(5회)와 허윤준 목사(10회)가 맡았다.

2부 회무는 회원점명시 현장 21명, 화상 1명 등 총 22명이 참여했다.

신임회장이 된 김경수 목사는 "지난 회기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동문회를 잘 이끌어 오셨다. 선배님들이 잘 다져놓은 기반위에 새로운 마음으로 신학교와 동문들을 위해 수고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선배들의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회장 장규준 목사는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획된 여러 행사를 못했지만 동문을 돌아보며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선배들의 협조에 감사하며 새로운 32회기가 힘을 내며 달려가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김경수 목사의 폐회기도 후 증경회장 이원호 목사의 축도로 회무를 마치고 식사를 하며 동문간 교제를 나눴다.

총무 김경수 목사의 사업보고를 통해 팬데믹으로 인해 신년기도회는 하지 못했지만 동문세미나와 총동문회의 밤 등 몇 가지 사업들을 보고했다. 특히 2차회에 걸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동문 선

김경수 목사의 폐회기도 후 증경회장 이원호 목사의 축도로 회무를 마치고 식사를 하며 동문간 교제를 나눴다.

(기사제공: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뉴욕교계 원로 초청모임에서 전광훈 목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 뉴욕교계 원로 초청모임

뉴저지와 뉴욕에서 포럼 및 집회도 개최

한국에서 광화문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담임, 국민혁명당 대표)가 10월 18일 뉴욕에 도착해 뉴저지와 뉴욕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미국에서 "광화문 세력"이라는 별칭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번 3차 전쟁(1차 1945-50, 2차 6.25)에서 이기면 남북통일이 되고 2050년엔 세계 G2가 될 것"이라는 유명학자의 말을 인용했다.

일정 중에 20일 오전 11시 산수갑산2 식당에서 뉴욕교계 원로들을 초청해 식사대접과 아울러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모임이후 같은 날 오후 5시 뉴욕 그레이트네 레오나드 팔라조 연회장에서 뉴욕자유연대회가 주최하는 '뉴욕 광화문 국민대회'가 열렸으며 19일 저녁엔 '이런 정부보다 북한에 많은 것이'를 배부했으며 북한에 많은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뉴욕지회장 김명옥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모임에서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이 해체 직전에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매수된 간첩으로 확신한다. 문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배부보다 북한에 많은 강의를 배부했으며 북한에 많은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오직 성령과 회복을!” 표어로

제48회기 뉴욕교협, 36대 이사회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제 48회기 뉴욕교협 회장, 부회장 및 임실행위원, 36대 이사장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이 10월 24일 저녁 5시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렸다.

“오직 성령과 회복을!”(행 1:8)을 표어로 출발한 48회기 회장 김희복 목사(뉴욕주찬양교회)는 “장기화 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중책을 맡았는데 더 깊은 기도와 헌신으로 1년간 섬기겠다”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뉴욕교협으로, 겸손하며 깨끗하며 사랑으로 섬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다는 일꾼이 되겠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은혜와 권능 있는 교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이임하는 47회기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는 “2세들의 정계진출도 후원하며 동포사회와 함께 하는 교협이 되도록 일을 해왔다. 48회기 김희복 목사는 기도의 사람이다. 새롭게 구성된 일꾼들을 축복하고 더 나은 시대적 소명을 행할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와 후원해주기 바란다”고 이임사를 전했다.

김일태 이사장(성공회뉴욕 한인교회)은 취임사에서 “회장이 임실행위원들을 돕는 것이 이사장의 일로 알고 있다. 이사회와 함께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이준성 목사 인도로 경배와 찬양 뉴욕주찬양교회 찬양팀, 대표기도 허연행 목사(목회자후원위원장), 찬양 뉴욕장로성가단, 설교 박희소 목사(증경회장), 헌금 소프라노 조슬기와 테너 유현호 성도(뉴욕모자이크교회), 헌금기도 김일태 성도(이사장), 축도 신현택 목사(증경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박희소 목사는 “교협이 바라는 일꾼”(고전9:16-2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 부름 받았으니 정찬받고



제 48회기 뉴욕교협, 36대 이사회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신실하며 존경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교협 일꾼 되는 조건은 첫째, 신앙이 성숙해야 한다. 둘째, 의무이행에 충실해야 한다 셋째, 교협 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넷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따라 열심히 일하라”고 말했다.

명을 두었으며 협동총무 30명, 분과는 A(목회분과) 18명, B(행사분과) 18명, C(대내외 사업분과) 21명, D(문화, 교육, 친교분과) 19명, 특별위원회 127명으로 구성했다.

2부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은 총무 임영건 목사 사회로 시무기도 최창섭 목사(증경회장), 이임사 문석호 목사(직전회장), 교협기 인계, 취임사 김희복 목사(신임회장)와 김일태 이사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교협 이사회 제35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격려사는 허길 목사(증경회장), 이만호 목사(증경회장)가 축사는 김원기 목사(증경회장), 윤세웅 목사(KCBBN사장)가 맡았으며 축가는 두나미스 신학대학교 맨해튼선포외집전도팀이. 축사는 조의호 목사가 낭독했다.

신임 이사장에 김일태 성도 선출

뉴욕교협 이사회 제35회 정기총회

뉴욕교협 이사회 제35회 정기총회가 10월 18일 오후 7시 거성식당에서 열려 신임 이사장으로 김일태 성도(성공회 한인교회)를 선출했다.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 디모데전서 1:11 말씀처럼 직분을 맡겼을 때 겸손하게 쓰임 받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회기가 되기를 다짐한다”며 “동역자로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부 예배는 조동현 장로 인도로 회장 김희복 목사가 설교했다.

2부 회의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김일태 이사장이 선출됐으며, 앞으로 임실행위원 모임에도 이사회 임원진이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김희복 목사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고전3:6-9)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도 열심을 품고 자라나야 한다.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남은 생애를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 심는 자나 물주는 자나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각각에 상급이



48회기 뉴욕교협 언론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임원진들.

복음증거 강조... 임원 및 사업계획 발표

제 48회기 뉴욕교협 언론초청 간담회

제 48회기 뉴욕교협이 지난 10월 21일 언론초청 간담회를 갖고 임원진을 발표했다.

일 준비기도회(일일텔레기도) △11월 10일: 성경통독세미나 △14일: 뉴욕장로연합회 다민족 집회 협력 △12월 12-14일: 미스바 회개운동 △2022년 1월 1-4일: 신년공식성회(3일간 오전, 오후, 저녁) △1월 16일: 신년하례식 △2월 3일: 민속놀이 △4월 17일: 부활절연합예배 △21-22일: 전도대회(강사 3명) △5월 12일: 사모위로 모임 △19-22일: 선교대회(강사 20명) △30일: 연합체육대회 △7월 7-9일: 할렐루야대회(청소년집회와 함께) 등의 계획을 알렸다.

오전 11시45분 산수갑산2에서 열린 이날 회장 김희복 목사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경건회를 인도했다. 김희복 목사는 “주님의 부락은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이다.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뉴욕교협이 되도록 복음증거에 포커스를 맞춰달라”고 말했다.

김희복 회장은 48회기 총회로 마치고 곧 “오직 성령으로 회복을!”(행1:8) 주제를 “기존 성도에게는 만족을 동포사회에게는 소망”이라는 부제를 붙여 신임회장으로서의 카뎀을 통해 포부와 계획을 밝혔다.

기자 간담회에서도 김희복 목사는 “뉴욕에서 오래 동안 뉴저지 한인지도자 포럼”이 대면과 비대면(유튜브)으로 각각 열렸다.

△회장 김희복 목사 △부회장 이준성 목사 △총무 임영건 목사 △서기 김정길 목사 △부서기 이준성 목사 △회계 이광모 장로 △부회계 박향우 목사 △수석협동총무 하정민 목사.

이외 48회기 사역은 이취임식 후 △11월2-12월 11일: 40



성령대망회 영성회복집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

성령대망회 영성회복집회, 강사 이용걸 목사

지난달부터 매일 열리는 성령대망회 영성회복집회가 10월에는 21일 오전 10시30분 뉴욕순복음연합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이용걸 목사를 강사로 열렸다.

실 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경우를 간증했다.

심화자 목사(은혜와진리교회 담임)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김정길 목사(뉴욕엘피스선교교회 담임)의 경배와찬양으로 시작해 특송 안경순 목사(은례사랑교회 담임), 대표기도 한우리 목사(뉴욕순복음연합회 부목사), 강사소개, 말씀 이용걸 목사(필라델피아장로교회 원로), 헌금기도 강해명 전도사(뉴욕영안교회), 헌금송 오루디아 전도사(방주교회), 광고, 축도 이용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용걸 목사는 “은혜받기는 어렵지만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순간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가져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용걸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골19: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첫째 하나님의 약속(말씀), 둘째 교회, 셋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다.

성령대망회 영성회복 집회는 매일 새 강사를 초청해 열리며 11월에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뉴욕순복음연합회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제 23회 윈브리지 페스티벌에서 SOW 팀이 공연하고 있다

세대, 장애인 비장애인, 문화 연결

제 23회 윈브리지 페스티벌 남가주중부교협 주관

제 23회 윈브리지 페스티벌이 24일 오후 5시30분 세리토스천교회(담임 방상용 목사)에서 남가주중부교협(회장 이아모스 목사)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페스티벌은 찬양사역자 조영석 목사, 랜디킴 밴드, 가요 연주자 이정화 집사, 피아니스트 이철화 집사, Seeds Of Worship 중학생팀과 고등학생팀, 남가주농인협회 프레이스 핸즈 수어찬양팀과 수어찬양사역자 김은정 집사, 바리톤 제이슨 강 등이 출연해 은혜롭고 즐거운 공연을 선보였다.

윈브리지 페스티벌은 1세대와 2세대 연결하고 한어권 영

어권 연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연결하고 음악뿐만 아니라 연극과 캘리그래피 등 문화를 연결하는 컨셉으로 이번 페스티벌이 기획됐다.

한편 이날 크리스천아트문화 협회에서 캘리그래피 전시를 했으며 행복한국교회(대표 이광열)에서 무료로 커피를 제공했다.

또한 VYCC(박민숙 사모) 2022는 중국에 버려진 탈북민 여성들과 그 자녀들을 돕는 자선공연 및 전시회 소식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박준호 기자)



OC전도회연합회 주최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마련 제2회 골프토너먼트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제2회 선교사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오렌지카운티전도회연합회 주최, 장학생 선발공고

오렌지카운티전도회연합회(회장 민갑) 주최 제 2회 선교사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토너먼트가 18일 오전 10시30분 로스코요테 컨트리클럽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민갑 회장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열리는 골프대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모두 즐거운 시간이 돼 감사하며 대회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섬김의 향기를 내어주시는 스태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좋

은 날씨를 주시고 행복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지난 2019년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처음 시작했으며, 그해 말 15명의 장학생에게 각 500달러씩 지급했다. 지난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회를 열지 못했다.

OC전도회연합회는 이날 중 장학생 선발공고를 내고 내달 중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장학금 전달식은 12월 총회와 함께 열린다.

(박준호 기자)

대흥장로교회 고 권영국 목사 천국환송예배

본지 필자(매일가정예배)로도 오랜 기간 집필했던 대흥장로교회 고 권영국 목사 천국환송예배가 25일 오후 6시에 열렸다.

고인의 장남 권오현 형제는 “아버지는 교회에서 목사님이셨지만 집에서는 아버지였다. 첫째 아들로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하나님아버지가 죄 많은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를 많이 하셨다”고 회상했다.

고인의 큰형인 권영석 장로는 “권영국牧사는 어린 시절부터 마음이 착하고 성실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위해 기도했다”며 권 장로는 “권영국牧사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며 막내지만 우리가족의 신앙의 롤 모델이었고 훌륭하게 목회하던 모습이 대견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몸을 추스르고 좋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한다”고 말했다.

황성국 목사 인도로 시작된 천국환송예배는 신영수 장로가 기도했으며 대흥찬양대가 조가를 불렀다. 이어 박규성 목사(세리토스장로교회)가 ‘의의 면류관(딤후4:7-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대흥남성중창단이 조가를 불렀다.

이어 고인의 장남 권오현 형제, 고인의 형 권영석 장로, 그리

고 민종기 목사(충현선교회)가 추모사를 했으며 고인의 생전 사역하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소개됐다. 유가족 대표 김영기 장로가 인사했으며 김충한 목사(넘치는교회)가 축도했다.

고 권영국 목사는 1960년 1월 1일 권봉대 목사와 박종술 사모 사이 2남2녀 중 막내로 송탄에서 출생했다. 1985년 권현미 사모와 결혼해 슬하에 3남(오현, 오인, 오윤)이 있으며 1986년 미국이민, 2021년 10월 20일 오후 6시40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력으로는 1984년 총신대 입학, 1986-89년 미국개혁장로회신학교, 1992년 리폼드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신력으로는 1986-89년 대흥장로교회 교육전도사, 1989년 본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으며 2020년 চে장장으로 사임했으며 본 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하관예배는 11월 1일 오전 11시30분 사이프레스에 위치한 포레스트론 메모리얼파크에서 열린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최선”

얼바인우리교회 설립예배 및 담임목사 취임식

얼바인우리교회 설립감사예배 및 데이빗권 담임목사 취임식이 24일 오후 4시에 열렸다.

데이빗권 목사는 “목회자는 특별히 담임목사가 가는 길은 더 죽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옆드러지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권 목사는 “지난 2년 반 광야길을 걸으면서 불평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함께해준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 기도가 있었기에 이 자리가 있다. 영적지도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감당하기 원한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됐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공동체를 향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 섬기듯 어르신들을 섬기고 장년들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다음세대 준

비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최선 다해 이끌어갈겠다”고 말했다.

본 교회 찬양팀과 민경영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신동일 안수집사가 대표기도 했으며 주디유와 아마피 스트링스가 바이올린 특별 연주했다.

이어 박성근 목사(남가주세 누리교회)가 ‘새로운 항해를 위해(행13: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으며 민승배 목사(남가주지교회 총무)가 본교회의 SBC 남가주한인지방회 가입을 선포했다.

이어 김영하 목사(남가주지방회회장), 이광길 목사(SOMA대학교), 이영우 목사(풀러동문회장)가 축사했으며 데이빗권 목사가 답사하고 꽃다발 증정과 축복기도 그리고 김경식 안수집사의 감사인사가 있었다. 이날 예배는 박성근 목사 축도로 마쳤다.

얼바인우리교회는 2019년 8월 18일 첫 예배를 드렸다.

(박준호 기자)



얼바인우리교회 설립예배 및 담임목사 취임식에서 권데이빗 담임목사 부부에게 축복기도를 하고 있다



영웅과 전설 프로젝트 주인공으로 선정된 수잔정 박사(사전 기운데)가 프로젝트 팀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수잔정박사 영웅과 전설 주인공으로 선정

크리스토퍼리 감독 등 매달 1명 선정 다규제작발표

한인 2세와 3세들에게 모범이 되는 한인 1세대들을 발굴해 소개하는 프로젝트 ‘영웅과 전설(Heros and Legend)’ 행사가 16일 오후 1시 SS레인빅토리호에서 열렸다.

이번 프로젝트는 다규멘터리 영화감독인 크리스토퍼 리 감독과 중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9월부터 매달 한명의 저명인사를 선정해 다규멘터리를 제작 발표하고 있다.

이날의 주인공은 소아정신과 전문의 수잔정 박사가 선정됐다.

크리스토퍼 리 감독 진행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수잔정 박사는 “좋은날 뜻 깊은 장소에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이 프로젝트가 활성화 되어 후손들에게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심겨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은 민병수 변호사가 선정됐다.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많은 학생들이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봉사활동도 귀한 일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기회를 갖는 것은

더더욱 귀한 일”이라 말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선한 영향력을 보였던 한인 이민선조들과 선배들의 역사를 발굴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작업을 영화제작을 위해 인터뷰를 하며 알게 된 선배들의 삶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날 발전된 한인 이민사회를 통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리 감독은 “SS레인빅토리호는 한국전쟁 당시 7000여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배이며 한국의 역사적 레전드”라며 “이 배를 관리하는데 한인이 한 명도 관여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이곳이 미국국립 역사 랜드마크로 지정된 만큼 한국역사문화원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히어로즈 앤드 레전드는 한 작품이 아닌 시리즈로 제작되고 있으며 1년간 제작된 작품을 모아 서적으로 출간하게 된다. 한편 영화로 제작된 작품은 오는 11월 13일 CGV LA 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고 권영국 목사 천국환송예배에서 고인의 장남 권오현 형제가 추모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기쁜우리교회 이전

2017년 설립된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30일부터 글렌데일장로교회(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로 이전해 예배드린다. 기쁜우리교회는 Covid-19 이후를 뉴노멀의 시대에 대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약 4년 간의 예배처소였던 United Community Church(UCC)와의 관계를 마무리하고 글렌데일장로교회에서 교회시설의 공동사용 계약을 맺고 10월 30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됐다.

▲문의: (818)662-0400 Office@joyfulccc.org.

미주성결교회 5060 목회자컨퍼런스

미주성결교회 5060 목회자컨퍼런스가 ‘후반전이 더 행복한 목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11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콜로라도 덴버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다.

▲문의: (424)558-3443

바른 성경을 찾기 위한 목회자 세미나

바른 성경을 찾기 위한 목회자 세미나가 오는 11월 4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성청운교회(담임 이명수 목사, 4465 Melrose Ave)에서 열린다. 강사는 김영재 목사(총신 신대원 78회 졸업).

▲문의: (323)708-3546 Joy 간사



원하트미니스트리 주최 심플워십에서 집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예배

원하트미니스트리 주최 다섯 번째 심플워십

문화사역단체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는 이웃을 돕는 찬양예배로 다섯 번째 심플워십을 23일 오후 7시 풀러턴에 위치한 뉴송스튜디오에서 개최했으며 유튜브 ‘Oneheart TV’를 통해 실시간 방송됐다.

한달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 심플워십의 이번 예배는 크리스천으로서 코로나로 힘들어진 주변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이번 예배는 뜻 깊다. Simple Worship 5 with Neighbors의 모든 헌금은 독거노인을 돕는 ‘코이노니아’ 선교회를 돕는데 사용된다.

코이노니아 선교회(대표 박종희 목사)는 독거노인 사역, 홀리스 사역, 교도소 사역 등 남가주 지역에서 다양한 사역을 펼쳐나

가고 있는 선교단체다. 코이노니아 선교단체를 돕는 헌금모금은 체크와 현금 외에도 Venmo, Zelle, Paypal, GoFundMe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심플워십에는 특별히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4명의 찬양사역자 허지애(싱어송라이터, 전 세리토스장로교회

파워워십리더), 박지은(웅기장이 17기), 이정희(새생명비전교회 찬양인도자), 종유석(새생명비전교회 찬양인도자)이 뜻을 모아 함께 찬양집회를 인도했다.

피터박 목사는 “미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부담으로 다가온 사역이 노인사역이었다. 매주일 젊은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예배 참석을 하는 모습이 미래의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하지만 코이노니아선교회를 만나게 됐고 박종희 목사님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귀하게 느껴졌고 잠시나마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했다”고 말했다.

심플워십은 온라인을 비롯한 간편한 예배에 익숙해진 이 시대를 향한 원하트의 도전의 목적으로, 예배의 중심에 초점을 맞추는 simple(단순한)예배, simple(간편한)한 것만 추구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예배의 모습을 지향하는 예배다.

(박준호 기자)

Art 대상 클로이남, 글짓기 대상 루크정

제8회 효사랑글그림 공모전 시상식 열려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가 주최한 제 8회 청소년 정제성 찾자 ‘효 글짓기 그림공모전’ 시상식이 16일 오후 2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미라클센터에서 86명의 참가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열렸다.

김영찬 목사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지내고 있지만 효사랑 글그림 공모전을 열수 있음이 감사하다”며 “팬데믹에서도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사람만이 성격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다음세대에

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일 목사와 한나박 자매 사회로 시작된 시상식은 남승우 목사의 개회 기도도 Joon Lee(은혜한인교회 EM목사) 목사의 설교로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

음을 전하고 효사랑선교회 대표인 김영찬 목사가 환영인사를 했다.

이어 박상목 목사(OC교협회장)와 유수연 교육위원(ABC 통합교육국)이 축사했으며 양종석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달리버러스 앙상블(지휘 최은애) 공연으로 시작된 2부 순서는 이민환 화가가 그림부문, 스테판 오 박사가 글짓기 부문 심사평을 하고 영김 거주 39지구 연방의원 의원이 축사했다. 이어서 열린 시상식은 주창국 장로와 영김의원이 참가학생 전원에게 상장수여를 했다.

Art 대상에는 클로이 남(6th) 학생이 글짓기 대상에는 루크 정(11th) 학생이 상을 받고 글짓기 대상은 당선된 글을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이날 시상식은 객재필 목사 폐회기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효사랑선교회)

오랜만에 활기… “변화 체감까진 멀었다”

99명 제한 풀린 주일예배 표정...수용가능 인원의 최대 30% 허용

예배 참여 인원 '99명 제한'이 해제되고 드린 주일예배 현장은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교회는 오랜만에 예배당이 채워지는 모습을 접했다. 지난 주일에 비하면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 담임 맹일형 목사는 24일 “지난 주보다 성도들이 예배에 많이 참석했지만 비대면예배에 익숙하지, 적극적인 참여는 이뤄지지 않은 듯하다”며 “그래도 못 보던 얼굴을 봐서 반가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서울 치유하는교회(김의식 목사)도 오랜만에 활기가 돌아왔다. 박강민 부목사는 “18개월 만에 교회에 나온 교인이 너무 기쁘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 또 다른 교인은 그동안 못했던 헌금을 한꺼번에 들고 눈물을 흘리며 교회에 전달했다”며 “목회자들도 못 봤던 교인들을 만나 들뜬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는 현장예배를 사모한 성도들이 찬양과 설교 내내 가슴에 손을 얹고 눈시울을 붉

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중심으로 1만2000명을 수용하는 대성전에만 2400명이 미리 표시해 둔 자리에 앉아 예배드렸다.

방역지침에 따라 인원을 분산하려고 예배 횟수를 늘렸던 교회들은 예배시간 조정에 들어갔다. 박명룡 청주서문교회 목사는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오전 예배 참석 가능 인원이 많이 늘어 오후 예배시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역 중소형교회들은 수용 인원 10%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다. 서울 연동교회(김주용 목사)의 한 부목사는 “달라진 건 없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일 뿐 모든 교회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최소 교인 대비 20%까지는 허용해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만 예배에 참석할 경우 4단계와 3단계에서는 예배당 허용 인원이 각각

20%, 30%로 상향 조정됐지만 교회 상황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다. 경기도 성남 성산교회 현상민 목사는 “수도권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20%까지 가능하지만 성도들에게 어느 예배에 나오라고 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코로나 이후 기존 1~3부 예배를 5부까지 늘렸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3단계인 충남 천안의 한 교회는 “고령의 성도들이 많은 교회 특성상 모두 백신 접종 완료자라 주일예배는 30%에 맞춰 15명이 출석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회가 25일 열리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종교계 의견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는 종교계 인사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 지난 22일 위원회 방역으로 분과 회의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종교시설 관련 내용이 없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종교 시설은 다중이용시설로 보지 않아 그룹으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 관리 중”이라며 “위드 코로나에도 그루핑 정책이 아닌 별도 정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필요성에 공감…세부조율 견해차 ‘갈길 멀어’

‘통합논의’ 한교총·한교연·한기총 첫 공식 모임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개신교 3개 대표 연합기관 관계자들이 통합 논의를 시작한 지 2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통합의 필요성과 시대적 요구에 모두 공감했지만 통합을 위한 세부 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를 보였다.

소강석(한교총) 송태섭(한교연) 대표회장, 김현성(한기총·임시대표회장) 변호사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기관통합 준비위원회 모임을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기관마다 구성된 통합준비위원회 대표자들도 함께했다.

김태영 한교총 기관통합준비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통합을 놓고 기관별로 여러 차례 접촉해 왔다가 처음으로 세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며 “과거에도 연합기관의 통합을 시도했다가 결국 결렬됐는데 (전염병으로) 예배가 압박받는 이 시기가

하나님이 주신 통합의 ‘골든타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 대표회장도 “문화·마르크시즘 등의 공격을 받는 한국교회 그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탓에 한국교회를 지키기 너무 힘드다고 밝혔다”면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진정한 예배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기관 대표들은 통합 필요성과 시대적 요구엔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통합을 위한 세부 의견 조율에서는 변하지 않는 의견차를 보였다.

한기총은 통합 기관 명칭을 한기총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한기총은 그동안 통합의 조건을 달지 않고 방법과 논의의 대상을 내려놓고 열린 자세로 접근해 왔다”면서 “연합기관 통합의 상징과 의미는 32년 전 한기총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총 내 이단 문제

가 선결돼야 한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한기총으로서 회원 교단인 그들을 배제하고 통합을 논의할 수는 없다”며 “해당 교단에 대해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마음가지집이 있어야 대화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교연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다른, 일부 교단이 가입된 한교총에 대해서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한기총엔 고소·고발 건 등 내부문제 해결과 정상화가 선결 과제라는 입장을 전했다. 권태진 한교연 통합추진위원장은 “작은 교단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통합을 진행하려 한다”며 “내부 총회에서 부결될 일을 미리 정하고 통합을 추진하신 안 된다고 보기에 신중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기관통합을 위한 연석회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한국교회와 민족 앞에 한국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한 일을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한다”며 “한국교회는 철저한 방역에 힘쓰며 자율적인 예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2심 공판서 이만희에 징역형 5년 구형

“방역 방해 변명 일관…1심 무죄선고 파기를”

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90)의 2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징역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 1월 감염병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방역활동 방해와 관련해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를 선고해 달라”며 징역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 1월 감염병 위반

에까지 미치고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만희는 최후 진술에서 ‘신천지가 피해자’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신강식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는 “이만희 교주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을 것”이라며 “신천지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한국사회에 코로나를 확산시킨 악영향을 고려해 재판부는 사이버 교주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상 계시나 ‘환상 계시’란 용어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구분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예언(預言)’은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뜻과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뜻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아시아’도 지금의 아시아 지역이 아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인 터키 일대를 말한다.

양 목사는 “이 교주 자신이 요한계시록의 참증인이라고 하는데 막상 그 구체적인 실상 하나하나를 신천지 신도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그가 주장하는 실상이나 관련 시간 간주 바뀌는 것은 짜깁기한 ‘누더기 실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천지 지도부는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인 내년 1월 16일에 있을 전도 현황 보고대회를 앞두고 포교에 열안이 돼 있다”며 “연말까지 집회를 이어가며 사람들을 미혹해 신천지 센터로 등록시키려 한다. 현혹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잠자는 교회’ 깨우는 노력을”

예배 못 드리는 곳 1만곳...교회언론회 “대책 마련해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제한적 대면예배 허용에도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하는 ‘잠자는 교회’를 깨우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회언론회 관계자는 20일 “방역 당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제한적 현장예배가 시작된 지 수개월 지났지만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는 교회가 상당수 있다”며 “위드코로나가 되면 이들 교회를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난가를 총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교회언론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배포한 코로나19 관련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국교회 6만여개 중 16%인 1만곳 가까운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추산했다. 지난 5일 중대본 보도자료를 보면 주일인 3일 점검 인력 7411명이 종

교시설 1만6403곳을 점검한 결과, 현장예배를 드린 곳이 1만3355곳(82%)이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린 곳은 351곳(2%), 미실시된 곳은 2693곳(16%)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일요일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7대 중단 종교시설을 점검해 왔다. 종교시설은 의미하는 것이며 예배도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예배 미실시 2693곳이 전부 교회는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교회언론회 측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종교시설 중 대다수는 교회인 데다 기독교 인구나 교회 수를 감안하면 점검 대상 대부분은 교회”라며 “전수조사하면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16%보다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의지하지 말고 각 교단과 지역 기독교연합회

가 잠자고 있는 교회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교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개척교회를 목회하다 최근 문을 닫았다는 A목사는 “잠자고 있다면 깨어날 수 있다. 우리는 문을 닫았으니 깨어날 수도 없다”면서 “매년 2000개 교회가 생기고 2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코로나 상황에서 선 문 닫은 교회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위기 상황에 목회자들이 버틸 힘을 키우기 위해 한국교회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진행한 미자립교회 연수 프로그램인 ‘네스트 목회자권퍼런스’는 신청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마감되기도 했다. 지용근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는 “재정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위기 상황에도 버틸 수 있도록 목회자들의 영적, 재정적 체력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면서 한국교회 의견은 제대로 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교회 간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뒤 청와대가 이를 수용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목회자들의 제안에 “여러 종교도 함께할 수 있다”고 화답했고 이후 7대 중단과 문체부, 복지부, 행안부가 참여하는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방역조치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종교계와 논의했다.

서울의 한 개척교회 목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하는데 한국교회는 말 그대로 전 국민에게 분노의 대상이 됐다”면서 “대한민국 1000만명이 기독교인인 상황에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 목소리를 듣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남녀평등에 동성애·트랜스젠더 평등 섞여선 안돼”

복음법률가회 젠더주의 비판 포럼,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성평등 기본법에 포함된 페미니즘 젠더주의 비판 및 개선방안’ 포럼

계시록 예언·성취가 신천지에 있다?

신천지 온라인세미나에 “현혹되지 말라” 당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자신들의 정체를 논골적으로 드러내며 포교하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교외와 성도들의 주의가 요청된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내년, 그들만의 유월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미혹해 포교 성과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라며 경계를 당부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18일 온라인 세미나에서 성경 요한계시록 예언과 그 성취의 증거가 신천지에 있다는 것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주는 강연에서 전형적인 교주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갑자기 큰 별을 본 뒤 신앙을 갖게 됐고, 농사 짓던 자신이 요한계시록 속 밭 모심의 실상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그는 “예수님이 깨닫게 해준 것을 전 세계 교회들과 지

구촌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하라 해서 전하는 것”이라며 “2000년 전 예언이 오늘날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뤄졌다는 걸 알리기 위한”이라고 했다. 이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뤄진 것을 직접 봤는지 스스로 물어보라. 비겁한 자가 되지 말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바이블백선센터 양형주 목사는 1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교주가 내가 말하는 실상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거나 ‘계시록의 실상이 이뤄진 곳이 신천지다’는 식의 얘기는 전부터 계속했던 주장”이라며 “문제는 자신의 주장을 자주 바꿔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양 목사에 따르면 이 교주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의 예언 가운데 신천지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과 인물로 성취됐다는

최찬영 ‘해방 후 첫 한국 선교사’ 별세

아시아·태평양 성서 보급에 헌신

‘해방 후 첫 한국 선교사’인 최찬영 선교사가 20일 9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최 선교사는 ‘아시아인 최초의 태국과 라오스 성서공회 총무’, ‘아시아인 최초의 세계성서공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무’ 등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 족적

을 남겼다. 1926년 평양에서 태어난 최 선교사는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다. 감리교신학교에 다니던 중 48년 장로회신학교에 재입학했다. 6·25전쟁 중엔 군목으로 활동했고 장로교총회 추천을 받아 56년 6월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의

음선필 홍익대 헌법학 교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 양성평등 정책의 근간으로 헌법이 말하는 남녀평등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양성평등 용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만큼 삭제하고 양성평등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 위드 코로나 정책서 소외될 우려

민관합동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종교계 인사 전무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수립에 종교계가 또다시 외면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 13일 출범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민간자문단에 종교계 의견을 전달할 인사가 한 명도 없어서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국민과 함께’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국교회총연합 관계자는 18일 “종교계 소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도 문체부 장관이 참여하는 만큼 종교계가 소외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종교계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민관합동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꾸렸다. 김부겸 국무총리, 최재천 이화여대 예코과학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국조실장, 질병청장 등 8명이 정부위원으로 들어갔다.

위원회엔 경제민생·자치인

전·방역의료·사회문화 등 4개 분야별 민간위원 30명도 포함됐다. 지난 13일 1차 회의에서 위촉장도 전달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의 자문과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민간위원 구성에 있다. 종교계 의견을 들어야 할 사회문화 분야 민간위원 중엔 문화관광 체육 관계자는 있지만 종교계 인사는 빠져있다. 사회문화 분야는 교육결손 회복, 국민심리 문화적 치유, 사회 문화분야 업계회복 지원 등을 논의한다. 주관부처는 교육부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4개 분과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가 민간위원 명단을 제출해 함께 논의해서 명단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방역의료는 복지부, 자치안전은 행안부에서 명단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종교계 의견을 수렴해온 문체부 실무 담당자는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경기 성남의 한 대형교회 목회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는 종교시설, 특히 한국교회를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몰았다. 방역지침에는 종교시설이라는 별도 항목까지 만들었으

선교사로 태국에 도착했다.

태국과 라오스 성서공회를 거쳐 세계성서공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무로 일하며 약 15억 권의 성경을 배포하는 데 기여했다. 선교사 은퇴 후엔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5년간 연봉 1달러 교수로 후학을 양성했고 2009년엔 미국 LA포감사신학교를 통해 한국 선교사로 파송 받아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를 돌봤다.

2013년 건강이 나빠진 아내 김광명 선교사를 위해 자녀가 있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3년 전 김 선교사가 세상을 떠난 뒤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킹슬리메노의 은퇴자 마을에 살면서 은퇴 선교사를 위한 ‘황기 선교사 운동’을 시작했다. 풀러신학교 재학하던 선미니스트리 대표 김정환 선교사와 함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00명의 황기 선교사를 임명했다.



캄보디아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조 에스터 선교사가 인사드립니다.

COVID-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캄보디아도 COVID-19 때문에 2020년 3월 16일 전국의 모든 학교가 닫혔다가 이제 6세이상 아이들까지 백신을 다 맞히고 11월 1일부터는 학교문을 연다는 소식입니다. 이곳 사역도 학교 등교에 맞추어 거의 1년 7개월째 문을 닫았다가 이제 11월1일에 다시 센터 문을 열 계획입니다.

2008년 5월에 캄캄 시골 마을에서 학생들과 함께 살면서 시작한 기숙사와 영어학교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커져서 지금은 3개의 마을 센터와 코너스톤 국제학교, 임마누엘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마을 센터는 기숙사에서 자란 학생들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코너스톤 국제학교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3학년까지 있습니다. 매년 한 학년씩 올라가는데, 같은 교회에서 파송되신 정 혁 선교사님께서 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멈추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임마누엘 커뮤니티 센터가 건축이 되어 (2020년 5월 1일-2020년 9월30일) 11월 1일부터 학생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센터를 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NGO 임마누엘 캄보디아가 설립이 되어 캄보디아에서의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에 닫혔던 학교가 2021년 1월 5일-3월 19일

까지 두 달 잠깐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COVID가 퍼져서 닫긴 했지만 이 기간 중에 개별 학습 및 독서를 위해 태블릿(온라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영어교육과정을 시작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개의 태블릿을 구입하여 센터에 배포하고 교사들에게 이것으로 어떻게 교육에 사용할지 워크샵을 제공했습니다. 시골 마을에는 제대로 훈련된 영어선생님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느 정도 태블릿을 이용하여 그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 있는 이 시간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연구해야 할 귀한 시간으로 주어진 듯 합니다.

앞으로 새로 지어진 임마누엘 커뮤니티센터에서 할 일들을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NGO로서 마을주민을 돕고 학생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NGO가 지원할 대상은: 어린이(초등학생), 청소년들(중고등학생), 학교 중퇴 청소년들, 마을 중년층 여성들, 마을 노년층.

2. 프로그램: 방과후 영어교실, 한국어강좌, 영어강좌, 컴퓨터교실, 공부방, 도서관, 학교 중퇴 청소년들을 위한 기초학력 교육(캄보디아어, 영어, 수학), 어른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세미나(요리 교실, 보건, 위생 등), 돋보기안경 보급, 축구교실, 악기 교실, 문화 교류, 재교육, 어린이 집, 클리닉, 카페 등입니다.

아래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들입니다.

a. 현재 가장 가시적인 계획은 방과후 영어 교실과 컴퓨터, 영어, 한국어 교육입니다. 오전에 영어, 한국어, 컴퓨터 교실을 열고, 오후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교실을 엽니다.

방과후 영어 교실의 영어 프로그램은 기초는 개인에 맞게 공부하도록 tablet의 영어 프로그램 (kitkit school)을 사용하고, 이 단계가 끝나면 시험을 거쳐 각각 학생에 맞는 레벨의 반에 들어가서 배우는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tablet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을에 있는 3개의 센터에도 tablet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영어와 한국어 등 언어교육은 가능하면 온라인 수업으로 미국이나 한국에서 원어민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았습니다.

컴퓨터 교실에서는 기본 프로그램 사용과, 직업을 얻을 때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가르칠 계획입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이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해서 수업 시작 전에 빈 시간 동안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마을에는 교과서 외에는 책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문화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캄보디아어책, 영어책, 한국책 등을 구비하여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책을 좋아하도록 하겠습니다.

b. 이 나라에도 성인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들이 마을에도 많습니다. 운동이 치료방법 중 하나인데, 여기서 약만 복용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마을의 중년 아주머니들과 유튜브의 운동프로그램으로 매일 운동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는 방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아주머니 두 분과 운동하 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께 세미나를 통해 지식을 높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c.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누가 모셔다주지 않으면 센터를 방문하기가 힘듭니다. 마을길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삼륜차를 사용하여 어르신들 센터로 모시고 와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운동과 다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마을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d. 스마트폰사용이 늘어나며, 노안이 시작되는 시기가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돋보기안경이 마을 사람 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이 되고 있습니다. 돋보기안경의 보급도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e. 이제 축구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마을 학생들에게 오픈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각 학교마다 있는 축구팀들이 토너먼트를 할 수 있도록 축구장을 제공하여 전체 마을에 유용 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f. 캄보디아 교육 커리큘럼에는 음악, 미술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볼 줄 모릅니다. 그 냥 듣고 따라서 키보드, 기타를 연주하는 수준입니다. 마을 학생들 중에서 원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키보드, 기타, 드럼 등을 가르쳐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미국, 한국에서 봉사자들의 방문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한 캄보디아의 문화를 배우게 됨으로써 외국 문화와 캄보디아 문화가 만나 교제가 이루어지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g. 까페가 NGO 프로그램의 큰 부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차를 마시고 교제하는 공간, 그리고 가르치는 공간, 쉬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



을 사람들이 꼭 오고 싶어 하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h. 클리닉은 캄보디아 의사가 등록하는 정식 클리닉이 되고,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치료하시면 이곳의 낙후된 의료체계에서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한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X-ray실, 검사실, 초음파실, 치료실, 치과, 약국까지 준비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최상의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i. 어린이집은 어르신들이 손자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러 올 때 아이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고, 직장에 다니거나(선생님), 일을 해야 하는 어머니들을 위해 아이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j. 학교 중퇴 청소년들을 위

한 프로그램은 기술도 없고 할 일도 없어 방황하는 마을 청소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기초를 놓치고 따라갈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기초 캄보디아어, 수학, 영어를 가르쳐서 나중에라도 직업 훈련을 받을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마을에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이 또한 마을에 공헌하는 한 방법입니다.

저희 NGO가 마을 사람들을 문화, 경제, 사회, 보건 등 여러 방면으로 도울 수 있는 단체로 커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시오.

조 에스터 선교사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14강 / 요셉(1)(창 42-50장)

하나님의 비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의 것이지 요셉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서 진행하는 요셉의 꿈이 아니라 요셉의 동이 없어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꿈'과 다릅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다릅니다. 비전은 분명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은 우리의 경험과 능력 정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세우는 것,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누구를 위해서'가 다릅니다. 비전은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나의 가족, 나의 사업, 나의 사역 등 '나의 것'을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셋째, '최선을 다함의 내용'이 다릅니다. 비전은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함하기에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꿈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같아 보여도 그 최종 목적지가 결국 죄인인 '나'이기 때문에 그 최선의 내용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도 진행될 수 없습니다.

넷째, '포기할 수 있는가'가 다릅니다. 비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초월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미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시고 진행하

는 하나님을 뵈니다(창39:2,3). 또한 요셉 역시도 모든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창39:4). 결코 요셉에게 좌절과 절박함이 없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올 때는 그 마음의 괴로움으로 애절하며 매달렸습니다(창42:21).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 하나님을 뵈니다(창39:2,3). 또한 요셉 역시도 모든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창39:4). 결코 요셉에게 좌절과 절박함이 없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올 때는 그 마음의 괴로움으로 애절하며 매달렸습니다(창42:21).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 하나님을 뵈니다(창39:2,3). 또한 요셉 역시도 모든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창39:4). 결코 요셉에게 좌절과 절박함이 없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올 때는 그 마음의 괴로움으로 애절하며 매달렸습니다(창42:21).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습니다(창39:4). 그러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창39:5). 요셉을 애굽에 보낸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죄수가 되는 길

이제 요셉은 관문 하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주체가 아닙니다. 요셉 자체의 선행과 의로움으로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주체되시는 하나님이 진행되고 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이제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 감옥에서 다시

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창39:9).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다들 그렇게 중으로 사니 대충 묻어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한 야곱에게서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게 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창39:11-18).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말대로라면 죽어야 마땅하지만 자기 아내를 잘 아는 보디발은 그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보냅니다(창39:19,20). 요셉은 아직 죽을 수 없습니다.

죄수가 된 요셉

요셉이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일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살인, 강도, 도둑질 등의 일반 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과 정치범이나 왕의 측근들을 가두는 두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정치범이나 왕의 측근들은 다른 감옥에 두거나 같은 감옥에 두더라도 격리를 시킵니다. 다른 죄수들을 선동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셉이 보내져야 할 감옥은 일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자기 집 안에 있는(창40:3)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 요셉을 보냅니다(창39:20).

(16면으로 계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교제의 즐거움(눅19:45-20:8)찬458장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신자의 마음은 천국 교제의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이 사실을 본문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기도의 향연이 가득 찬 교제임을 보여줍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하신대로 성전은 예전의 실제,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리고 교회를 가리키는 곳으로서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기도의 집입니다. 둘째, 그 교제를 상

실한 곳은 강도의 굴혈이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곧, 외식의 죄만 키우는 바리새인의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영생의 교제를 알지 못하는 곳에는 어두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교제로 가득찬 이 혼란의 시대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따라 참 교제를 구해 그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증거하십시오.

화 하나님 나라(눅19:1-38)찬219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보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38절은 무엇을 보여줍니다? 첫째, 창세전과 영원계를 보지 못한 신자는 현실에 임한 하나님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순과 갈등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그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나라 맛을 보고 있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육안으로 볼 수 없으나 그 증거는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바울이 맞본 하나님나라는 크게

두 요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자리라면 그곳이 하나님나라입니다. 먹이나 마시나 영광을 주께 돌리는 마음이 있으면 복입니다. 다른 하나는 평화입니다. 그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평강이며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수 종말의 지혜(눅21:1-15)찬167장

주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을 어떻게 대처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15) 첫째, 예루살렘 멸망징조와 더불어 세상종말의 징조를 가르치셨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지구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징조만 아니라 그 때를 통과하는 교회에게 지혜를 일러주시며 세상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온갖 핍박에 궁색한 변명이나 자기 재주들의지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구제(words)와 지

혜(wisdom)를 따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2가지 지를 배웁니다. 첫째, 종말을 잘 지나기 위해 가난한 마음(마5:3)을 갖는 것 둘째, 성령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성경말씀을 묵상함으로 거기에 숨는 일입니다. 성경만이 종말의 환난에서 피할 피난처며 기근의 때에 먹을 양식이며 혼란 때에 붙들 기준이며 흑암의 날에 갈 길을 보여주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목 완전한 죽음(눅23:46)찬519장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는 주님의 절규는 구속의 완전성취를 선포하십니다(눅23:46). 이것으로 모든 구약 예언과 교훈들과 사건들의 성취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그 효능이 영원히 나타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음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누가는 3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이

뤄진 것을 보여 그길로 가는 자는 살아나고 새로워지도록 되게 됩니다(히10:20). 그리고 백부장과 주변사람들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목격함으로 증인이 됐음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진실과 사실로 이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 역시 사실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완전한 죽음을 의지하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과 부활의 능력을 누립니다.

금 십자가를 사랑하자(눅23:13-25)찬496장

십자가를 중시한 기독교는 실제로 십자가사건을 통해 복음을 증거합니다. 첫째, 최대의 역을 한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23). 군중의 큰 소리가 세력을 얻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역을한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둘째, 불의한 십자가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의 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때려서 놓아주려고 할 때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동했습니다. 셋째, 무지의 십자가였습니다

다.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안 빌라도지만 성난 군중 앞에 소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의를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토 성령의 조명(눅24:1-32)찬177장

엘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경험은 성령의 조명에 관해 무엇을 가르칩니까?(32) 첫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사건이 신앙의 근거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없다면 그 구원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현장을 목격케 하는 것보다 성경을 깨닫게

하심(이해시킴)으로 그의 죽음을 나의 죽음, 그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알게 하십니다. 둘째, 그 방법이 우리생애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주님의 방법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두 제자와 동행했으나 알지 못해 낙심했을 때 주님은 성경을 풀어주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까지 성경에 착념하십시오.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20)

평생을 걸쳐 학습을 멈추지 마십시오

다니엘 9장 2절을 보자. 여기서 그는 책을 통해 여호와와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었지만 둘은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예레미야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파했고 다니엘은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궁전 안에 기거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눈물의 예언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없었지만 아마 이제 그의 나이 80대 초반이 되어서야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특히 렘25:11-12)을 읽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곧 70여 년간의 유대민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가고 있음을 그는 알게 되었다.

있을 때마다 왕은 늘 그를 찾아 그에게 부탁하였다. 왜? 그는 평생을 학습하는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는 늘 공부하며 배우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결국 그는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잠언 18:15를 보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이를 메시지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늘 학습하기를 쉬지 않고 항상 새로운 명철에 귀를 기울인다"(Wise men and women are always learning, always listening for fresh insights)라고 해석하였다.



이희갑 목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그렇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결국 인생은 점진적인 발전 과정이요 학습은 전 생애에 걸친 꾸준한 단계별 과정이다. 하나님의 진리와 인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오기보다는 단계적인 학습의 과정을 통하여 이룩된다.

우리는 지식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식은 교육이나 경험으로 얻어지는 정보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깨달아지거나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지식의 사람은 교만하나 지혜의

다니엘의 경우 처음에는 남의 꿈을 통한 인간 네 문명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보시게 한 후 스스로 환상과 꿈을 통해 더 구체화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다. 처음에는 작은 시련과

사람은 겸손하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지식을 높이거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남을 섬기는데 사용한다. 겸손한 사람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말이다.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찾고 이들과 함께 한다. 겸손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잠15:33,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잠15:33,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원) 겸손한 사람은 항상 겸비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높이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것, 내가 의롭다는 것, 바로 바리새인들의 태도 때문에) 절대로 남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이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 특별한 계시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에 힘써 지식보다 지혜 추구...평생 학습에 게을리 말아야

도전(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 하겠다)의 극복을 통해 더 큰 시련(사자 굴)을 이길 만한 담대함을 얻게 된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다. 평생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정확하게 깨우쳐 주셨다. 그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가르치셨는데 처음에는 대략적으로(남방, 북방 왕국) 나중에는 아주 자세히(2300 주야, 일곱이레, 예순 두 이레 등) 가르쳐 주셨음을 상기해보라. 그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다. 결국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자이셨다.

미국 유명 사립학교인 Philips Academy의 건학이념은 none sivi이다. 라틴어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왜 공부하는가? 바로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사역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을까? 다니엘은 보면서 필자가 깨달은 점은 바로 학습하는데 평생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잠언 23:12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하나님이 위대한 교육자이셨지만 아무나 쓰지 않음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제 그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그의 지혜나 명철이 녹이 슬 때도 되었건만 다니엘은 계속 정진하였다. 그랬다. 다니엘은 늘 공부하였다. 늙어서도 말씀 읽기, 공부하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어떤 특별한 계시를 의존하기보다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힘썼다는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영적 능력은 절대 게으름과 함께 오지 않는다. 믿는 사람은 학습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영성을 단련시키는데 있어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는 평생에 걸쳐 그런 최고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어려운 일이

(16면으로 계속)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전세계 선교사들이 머무는 안식처 “뉴욕선교사의 집” 존폐 위기

26일 기자회견 열고 위급상황 알리

뉴욕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의 잠자리를 제공하는 ‘뉴욕선교사의 집’이 존폐 위기를 맞았다.

지난 10월 26일 오전 11시 뉴욕선교사의 집(142-03 39rd Flushing, NY 11354)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표이사 최문섭 장로는 “현재 무상으로 제공 받아 사용해온 집이 매각 될 상황에 놓였다. 건물주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건물을 매각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선교사의 집에서 구입하면 시가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매각비는 140만 달러(현 시가 160만 달러)다.

뉴욕선교사의 집은 2007년 당시 선의선교회(한국선사회복지재단 뉴욕법인) 이사장 성기로 장로가 운영하던 스텔라빌 3, 4층의 2베드룸 2유닛을 이용해 시작했다. 이 유닛은 성 장로가 무상으로 제공하다가 2009년 한 독지가에 의해 162가 단독주택으로 확장 이전했다. 이 역시 무상으로 9년간 제공되다가 사업상 이유로 매각됐다.

2015년 한 독지가에 의해 현재 건물로 이전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최문섭 장로는 “ 그동안 자체 건물구입을 위해 모금만 찬도 갖는 등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다”며 “건물주로부터 지난 4월에 노티스를 받고 그동안 이사회가 여러 방면으로 애썼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건물주와의 마감이 11월말인데 건물구입에 필요한 목표액은 1백만 달러(수리비 포함)”라고 밝혔다.

모금이 이루어져 현재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지하실을 미션커뮤니티 센터(선교 플랫폼)로 사용할 계획이다. 영세 선교단체들에게 공간을 빌려주고 교회와 사역자 및 선교기간이 유기적으로 나누며 각종 서비스(의료, 법률, 자녀교육, 심리상담, 선교상담-현재도 진행중)를 제공하며 선교지방생을 발굴하고 파송에 협력하러 한다.

뉴욕선교사의 집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1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의 잠자리를 제공했으며 현재 7개의 방

을 운영하고 있다. 렌트비는 없지만 전기 가스비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최소한의 수고비 등 매월 5천 달러정도가 소요된다.

2007년부터 뉴욕을 방문할 때마다 선교사의 집에 머물렀던 이동홍 선



뉴욕선교사의 집 건물

교사(니카라과)는 선교사의 집 상황을 듣고 기도하셨다며 장문의 글을 보냈다.



이사장 성기로 장로와 대표 최문섭 장로(오른쪽)

“...복음을 전하는 발들이 힘을 얻을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머물 곳이 없다는 안도감이 드는지 아마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아무 거림 없이 미국 입국시 뉴욕 주소를 당당히 기입할 수 있는 머물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요...”

선교사의 집을 다녀간 많은 선교사들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매우 안타까워할 것이다. 뉴욕교계 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다.

▲ 후원방법: 체크 Pay to order of Sunny Foundation, Inc.를 적어 메일하면 된다(142-03 39rd Flushing, NY 11354). 혹은 전화 (516)721-8101 최문섭 장로에게 연락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18)



2. 장애인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
밀알선교단이 초창기에 교회를 하지 않았던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선교를 이용하여 자신의 교회 성장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밀알선교단의 초창기에는 혹시 장애인 선교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교회 성장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교회의 협력을 얻어야하는 밀알선교단으로서는 교회를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37년이 지난 세월동안 밀알선교단은 장애인선교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 했다. 사역자의 대부분이 최저 생계비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고 그것은 밀알선교단에서 30년 이상 된 사역자도 마찬가지이다.

밀알사역은 세계 22개국 70개 지역으로 확장되었지만 밀알은 돈이 있는 선교단체가 아니다. 커졌지만 돈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진 것이다. 세상의 회사가 커지면 돈이 많아지지만 밀알선교단은 돈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많아진 것이다. 이제 여러 가지 할 일 많지만 교회의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한 교회에서 지원하면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단장들이 장애인 선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 장애인 선교를 하러온 단장들이 일반 교회를 겸임하면 장애인 선교에 집중할 수 없고 시간과 힘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일반 교회를 하면 장애인 선교가 우선순위에 떨어질 수 있겠다. 라는 염려 때문이었다. 장애인 선교를 최우선으로 하는 밀알선교단 입장에서는 단장들의 일반 목회 겸임을 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교회

는 일반교회가 아니라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힘이 분산되기보다는 더 장애인 선교를 잘하게 돕는 것이다. 뉴저지 밀알선교단이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역자의 영성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장애인 선교단체 사역자의 어려움은 일과 행사 중심이 되기 쉽다. 물론 개인적인 성경공부나 기도, 선교를 통해 영적 힘을 얻기는 하지만 자신의 약함과 연약성을 드러내놓고 교체할 친밀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A01 Dance Group 초청공연 후 기념촬영 했다

사역자들은 단순 봉사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고난을 같이할 동역자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장애인 선교를 위한 교회는 꼭 필요하다

대부분 봉사자들은 자신의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교회 중심으로 시간을 쓴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밀알선교단을 중심으로 시간을 써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요, 다른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알 장애인 선교는 이 장애인 선교를 같이 고민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며 시간의 우선순위를 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즉 교회가 필요하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 헌신된 소수가 있어도 괜찮다. 소위 장애인 선교를 하는 일반 교회에서의 사역자들은 그 일반

교회 안에서 친밀한 공동체를 가질 수 있다. 밀알 사역자 중에는 일반 교회 안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며 그 교회와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시애틀 밀알, 애틀랜타 밀알 등등.).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장애인 선교 동역자를 만나 서로 격려하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교회 장애인 부서를 책임 맡지 아니하고 그냥 주일 출석하는 사역자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장애인 선교를 위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밀알 사역자들은 장애인 사역을 위한 친밀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신앙

서 젊은이만 모이는 교회로 간다면 일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교회는 사정이 다르다. 장애인들은 젊은이들처럼 무슨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봉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일반 교회에서 장애인들을 케어하려면 인적, 물적인 자원이 많이 들어가서 잘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뉴저지 지역사회에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가 필요하며 일반 교회가 돌볼 수 없는 장애인들을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 교회에 보내어 협력한다면 뉴저지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2) 장애인들의 신앙을 위해 필요하다

밀알은 장애인들의 신앙을 최우선하고 있다. 밀알의 3대 목적이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이지만 그중의 가장 우선순위는 전도에 두고 있다. 그 말은 신앙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말이다. 장애인 중에는 주일날 교회

를 잘 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을 위해서도 교회가 필요하다. 장애 학생 중에 일반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부모는 일반 교회를 다니지 아이들은 집에만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밀알교회에 맡겨놓고 부모는 다른 교회에 가면 된다. 어린 장애인들은 일반 교회에 잘 적응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런 분들을 위해 교회가 세워지면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장애인들이 리더십을 행하여 볼 기회가 적다. 권사나 장로로 장애인들도 교회에서 역할을 하려면 그들과 함께 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 | | | | | |
|---|--|---|---|---|--|
|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대형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8: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일요일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4)481-2779 / www.lafgc.com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D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영아원(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213)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예배: 오후 1:20 영아원(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 대흥장로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 생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정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친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
|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cj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원: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안원예배: 오전 9:15, 11:30 일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235-78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
|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 생 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출신장로교회 협동목사) 성서사역 (월-금) 오전 8:30-오후 4:00(본문)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밖신도 여성회 3. 목회자/목사 4. 영적성장 5. 가정/교회 6. 사역사역 7. 영적성장/영아원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온세상기도회: 365일 24시간 온문 Tel: (714)446-6200, www.gracemj.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주님새문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 생 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8 |
|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 토크슨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 M 예 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 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 요 예 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전 9:3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비대면 시대,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새로운 콘텐츠 문화사역!



‘히즈핑거 출판’ ‘히즈핑거 몰’ ‘히즈핑거 미디어’

코로나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멈추고, 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라이프스타일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많은 일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또 다른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화상회의가 자연스러워지고 온라인 수업이 당연하게 느껴지게 됐으며 예배도 교회모임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이 어느새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젊은 이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졌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어느새 전 연령대를 다 커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유튜브 홀릭”이 됐다.

이런 변화는 고전 미디어들이 설 자리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다. 대형방송사들도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일인 방송은 더없이 많아졌다. 매일매일 수많은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온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대로 수많은 콘텐츠를 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천 미디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언제까지나 “한물간” “올드한” “재미없는” 과 같은 수식어가 붙

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미주크리스천신문사는 시대상을 반영한 문화사역을 시작했다.

‘히즈핑거 출판’ ‘히즈핑거 몰’ ‘히즈핑거 미디어’

히즈핑거 출판
히즈핑거 출판사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 만들어진 출판사다. 요즘은 책을 출판하는 일도 마치 일인 미디어 방송을



히즈핑거 출판



히즈핑거 몰

위졌다. 히즈핑거 출판사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 또는 예비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책 출판을 지향한다.

인터넷 시대라고 하지만 책은 사라지지 않고 그 고유영역을 지키며 우리 삶에 여유로움과 잔잔한 기쁨의 향기를 준다. 그런 마음을 담아 출판 작업을 하고 있다.

히즈핑거 몰
히즈핑거 몰(hisfingermall)은 “Bring holy spirit into your surroundings” 라는 슬로건처럼 우리들의 삶 가장 가까운 곳곳에 말씀으로 채우길 위하여 기독교 굿즈들을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이다. 최근에 진행 중

현책방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오래되고 제일 먼저 폐기되어지는 책으로 오래된 성경들이 있다. 또한 가정마다 오래돼 쓰지는 않지만 버리기엔 아쉬운, 어느새 ‘처치곤란’해진 성경들이 많다. 그리하여 그런 성경들로 새롭게 노트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말씀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살려서 노트북 커버로 재탄생시킨 제품들은 www.hisfingermall.com 에서 만나 볼 수 있다.

히즈핑거 미디어
히즈핑거 미디어는 유튜브 사역이다. ‘순삭성경’ ‘그레이스타임’ 이라는 2가지 주제로 현재 매주 금요일 영상을 업로드



히즈핑거 미디어 순삭성경 (삼손에피소드)



히즈핑거 미디어 그레이스타임

개 책을 들려주고 있다. ‘순삭성경’은 어렵고 따분한 성경이야기를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다. 기독교 문화는 올드하고 구시대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리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건강한 크리스천 콘텐츠를 추천해 줄 것이다. 미디어속의 영적전쟁, 문화의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구별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진부하고 세련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기독교문화에 새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문화사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info@chpress.net
(편집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시8:3)

하는 것처럼 위위졌다. 책 출판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이면, 좋은 책을 잘 분별하기는 어려

운 프로젝트로는 Re:bible 이라는 버려진 성경 재활용 프로젝트다.

하고 있다. 그레이스타임은 책 읽어주는 채널이다. 좋은 기독교서적을 선별해 이미지와 함

위해 이런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다. 우리가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알고

ONE STORY ...

(13면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특별한 훈련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감옥을 감독하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창39:21,22). 그래서 요셉은 감옥 안에 갇혔으나(창39:20) 감옥 안에서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창39:22). 사람 앞에서는 죄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

니다(창40:1). 왕의 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애굽 왕에게 범죄함으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바로 요셉이 갇힌 곳이었다고 요셉은 그들을 돌보는 자가 됩니다(창40:1-4).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두 관원장은 꿈을 꾸는데(창40:4)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고 그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을 맞이합니다(창40:4-22). 이때 요셉은 꿈 해석이 좋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

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창40:14,15). 요셉의 말은 한 마디로 ‘이곳 감옥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요셉도 모릅니다. 왜, 형들에 의해 아버지와 생이 별을 하며 애굽에 종으로 팔려왔는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데도 죄수가 되어 감옥으로 보내지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

습니다. 지금 요셉은 예수님이 범죄함 없이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아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관원장은 복직된 후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창40:23). hfamilyfa@gmail.com

다니엘 영성프로젝트

(14면에서 계속)

은혜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commit yourself to instruction, and turn in your ears to hear words of knowledge). 즉 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이다. 필자가 존경하는 어느 미국 목사가님이 계신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그분은 거의 하루에 책 1권을 읽는다고 했다. 지하에 있는 자기 서재에는 35,000권의 책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럴까? 필자는 그분의 설교를 주일마다 듣는데 늘 새롭고 감동을 준다. 그의 책은 이미 전세계에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

전과 영향을 주고 있다.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 부모가 공부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부모가 배운 바를 적용, 실천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왜 배운 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터넷, 페이스북, 그리고 세상 문화의 잡다한 것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면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 우리는 오늘날도 설교하지는 않은가? hlee0414@gmail.com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목회전공 + 선교전공

2021년 가을학기 온라인 강의 일정

8월 23일-10월 17일
DI8530 Biblical Theology of World Mission (세계선교의 성경신학)

10월 18일-12월 18일
DI8160 Church Planting & Growth (교회 개척과 성장학)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